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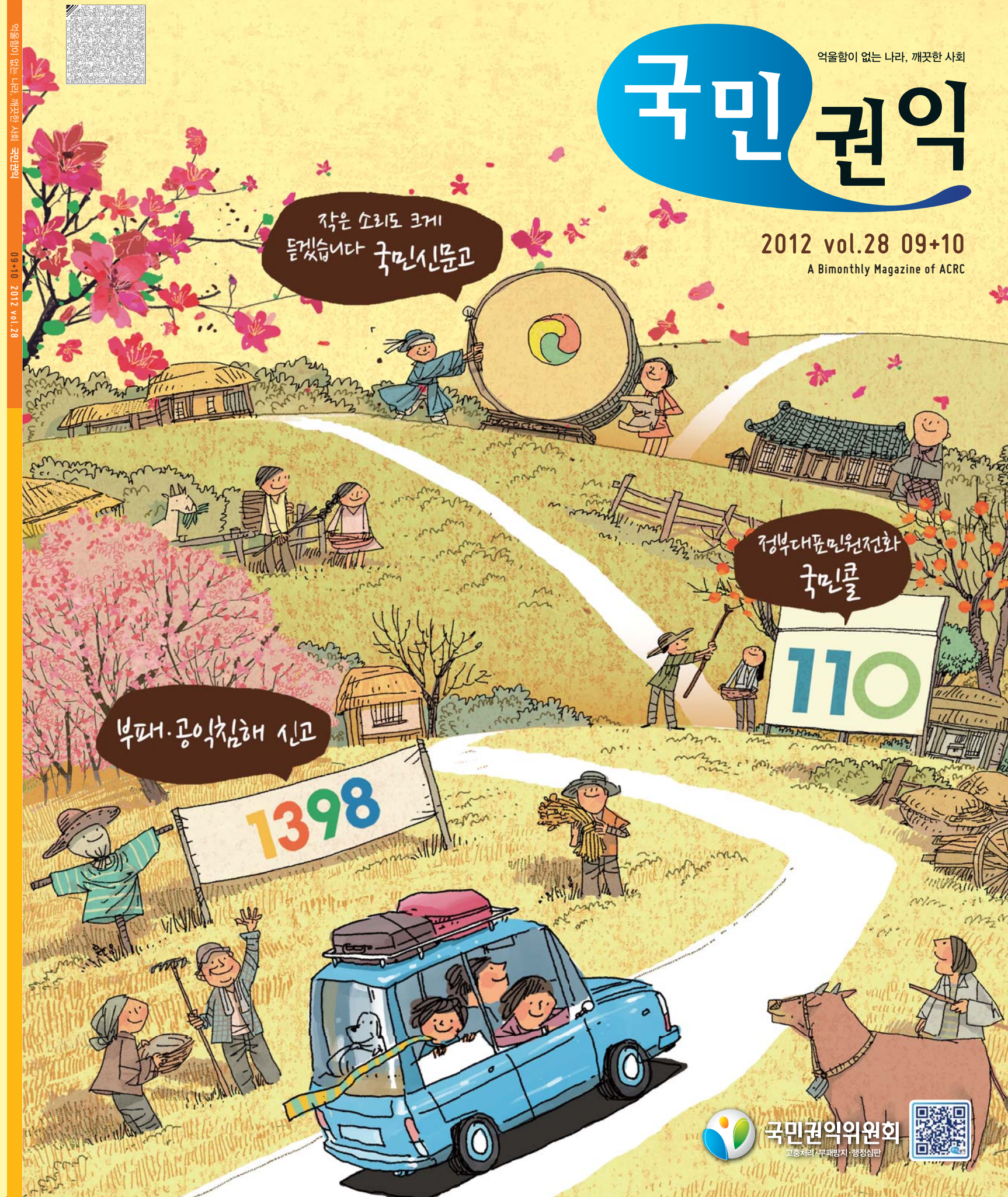
www.acrc.go.kr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2012 vol.28 09+10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국민의 소중한 권익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동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 신속하게 심판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행정심판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 각종 국가면허, 인·허가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부과 처분 /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

청구방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인터넷(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 가능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인터넷 또는 처분청에서 서식을 교부받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

소관사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행정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09+ 10

국민권익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2 vol.28 09+10

발행일 2012년 9월 24일
(격월간, 통권 28호, 비매품)

발행인 김영란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최학균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마곡동)

전화 02-360-2761

팩스 02-360-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 | 디자인 | 인쇄 조선뉴스프레스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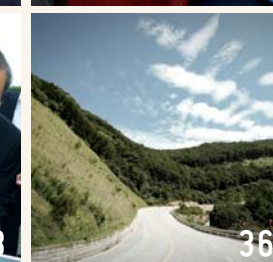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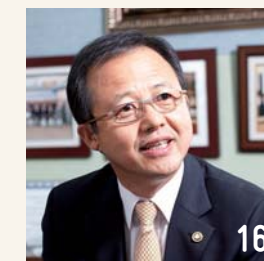
기 / 획 / 특 / 집

02 커버스토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주년
민간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전방위 압박

06 포커스
청렴교육센터 청주서 10월 문 연다

08 이슈
인기드라마 '넝쿨당'에
권익위가 떴다고?

10 전문가 제언
국민이 공감해야 진정한 의사소통



CONTENTS

공 / 감 / 누 / 리

12 이렇게 바뀔니다
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로스팅 가공국가
출산휴가 중 못 받은 급여도 임금에 해당

14 조사관의 현장이야기 | 국토해양심판과 김세진
60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명예

16 인터뷰 | 오준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장
“행정처분이 억울하면 오세요
국민의 편에 서서 심판합니다”

18 우리 이렇게 일해요 | 민원분석심의관실
국민과 정부 소통 돕는 늘 깨어 있는 '귀'와 '눈'

20 글로벌 권익위
몽골과 반부패 경쟁력 평가 활용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 옴부즈만과 MOU 체결

소 / 통 / 누 / 리

24 권익위가 갑니다
강원도 강릉·동해·삼척 이동신문고 민원상담 현장

28 양양 현장조정회의
'50년 숙원' 도로 직선화 조정안 합의

32 국민권익이 만난 사람
'의문사' 김훈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

34 권익더하기, 사랑나누기
노인복지센터 점심배식 보조로 '땀 뻘뻘'

행 / 복 / 누 / 리

36 여행 | 정선 만항재 '산상의 화원'
해발 1330미터 정상 구름 위로 가을을 걷다

40 시네마 토크 | 〈본 레거시〉
스파이도 인간이다

42 건강 다이어리
'총알 식사'는 건강의 적, 고지혈증·비만을 부른다

44 역사속 권익
조선시대 분경금지법, 청탁행위를 근절하라!

46 스포츠
이란과 원정경기 필승카드를 찾아라

48 컬처&컬처
가을 자라섬은 재즈로 물든다

52 i특독
추석 명절 스트레스, 앱으로 한 방에 날리자

53 이 한권의 책 | 〈키로파에디아〉
고대 페르시아제국을 세운 리더십

54 뉴스&피플

56 독자와의 대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주년

민간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전방위 압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9월 30일로 시행 만 1년이 된다.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반부패 영역을 확대해 ‘반부패 의지’를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선진국의 제도보다 더 확대된 신고제도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침해를 예방하고 반부패를 몰아내는 데 힘이 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우리에게 영화 <미이라>로 잘 알려진 여배우 레이첼 와이즈가 주연을 맡은 <내부고발자(The Whistleblower, 2010년)>, 유엔, 미국인이 개입된 보스니아의 인신매매, 아동성매매 등 비리를 밝히는 유엔 국제 여성 경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다.

내부고발을 다룬 또 다른 영화 <인사이드(The

Insider, 2000년)>는 담배의 해악에 관한 연구결과를 은폐하려는 담배회사와 이를 폭로하려는 전직 담배회사 임원과 싸움을 그렸다. 우리나라 영화 <모비딕(2011년)>은 정부조직의 음모를 기자에게 제보하는 고발자가, <부러진 화살(2011년)> 등에서도 사학재단의 내부 비리를 드러내는 고발자가 등장한다.

국내의 영화에서 이렇게 ‘내부고발자’ 소재가 등장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직 내부의 비리를 밝히는 공익신고자는 밀고자 혹은 배신자로 몰려 각종 행정적,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공사의 역무원 5명은 열차사고의 위험을 언론에 제보했다. ○○공사는 제보자를 색출해 3명을 파면하고 2명에 대해 감봉전출 조치를 내렸다. 파면된 3명 중 2명은 법원의 파면처분 취소판결로 복직했으나 끝내 1명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유○○씨는 중국산 참기름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국산으로 속이거나 식용유를 섞어 유통하는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보했다. 그런데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제보자 유씨의 인적사항을 입수한 문제의 업체는 유씨를 무고죄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결국 유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렇게 비리고발을 한 뒤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에 다수의 공익을 지키고, 공익침해 사례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틀을 마련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밀고자·배신자로 낙인찍는 관행에 쐬기

사실 ‘공익’이란 공공분야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공공지출 유발로 인해 사회시스템의 왜곡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즉,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부패방지법이 있긴 했으나, 이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한 신고자 보

호만 가능했다. 민간부문 공익침해와 관련해 신고자 보호를 명시한 개별법령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신분누설 금지’ 등 선언적 수준에 그쳐 보호의 실효성이 미흡해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부실공사로 인한 교량·건물 붕괴, 유해식품 제조·유통 등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침해 행위임이 분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또 나날이 전문화·은밀화·지능화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와 감독만으로는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건전한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독과점 폐해 방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이 2008년 10월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와 신고자 보호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화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2008년 11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마침내 2011년 3월 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공포됐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같은해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령에 비해 ▲신고주체 확대(공무원·근로자→누구나) ▲신고 처리절차 명시(접수기관별 절차 명시) ▲보호수단 강화(고용법원 등의 판결로 보호→행정청의 신속한 보호 및 위반자 제재) ▲보호범위 확대(해고 등의 원상회복→행정적·경제적 불이익도 보호) 등의 면모를 지녔다. 또 수사기관과의 연계, 비밀보호·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의 다양화, 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을 갖추어 세계적으로도 선진화된 제도다.

공익신고자는 최대 10억원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 주체를 ‘누구나’로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

는 사실을 공개보도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이후 권익위에만 총 90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8월 31일 기준). 유형별로는 무자격 의료행위, 유해식품의 판매 및 허위광고 등 건강 분야가 361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도 지난 8월 31일까지 보호조치 4건, 불이익조치 금지 2건, 신분비밀보장 3건, 신변보호 3건 및 구조금 1건 등 총 13건이 접수됐다. 이 중 보호조치 3건 및 신변보호 1건 등 4건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인용 결정됐다. 또 보호조치 1건과 불이익조치 금지 1건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나머지 7건은 법적 요건 불비 등으로 각하, 취하 등 종결 처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실제 적용된 사례 가운데 현재 가장 많은 것이 보호조치인데, 이 가운데 인사조치를 원상회복한 사례를 보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이들은 〇〇〇 전동기 주요 부품 파손사고와 관련된 사진자료를 외부에 무단 유출했다는 이유로 〇〇공사로부터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 권익위는 2011년 12월 19일 〇〇공사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불이익을 받았음이 상당하고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결국 〇〇공사는 권익위의 조치에 따라 신청인들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일로부터 처분취소일(2012년 3월 19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자 포함) 일체를 지급하는 등 보호결정을 이행했다.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신청한 한 사례는 상당히 다급

한 경우였다. 신청자는 2011년 12월 〇〇시 피신고자가 허가 없이 제한구역에서 입목벌채 및 위법건축물 시공을 하고 있다고 신고한 후 신분이 노출되어 피신고자로부터 신변위협에 시달렸다. 권익위는 2012년 1월 3일 이러한 신청인의 신청을 접수하고 긴급한 보호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열흘 뒤인 1월 13일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관할 경찰서는 신청인의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했다.

공익신고 전담인력 확충 등 조직확대 필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일 년 동안 시행돼오면서 새로운 '니즈'가 발굴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드러났다.

권익위 권익심사정책과의 김인중 과장은 먼저 “여러 기관이 함께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익침해행위 예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관한 각종 건의와 제도발굴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건의가 접수되거나 직접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해당 기관과 협의·권고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 가능성도 엿보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갈등관계에 있던 각종 자격증 관련 민간 직능단체 간에 상호 자격증 업무에 관한 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그동안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개선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집단갈등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법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기업·행정기관·공공단체 등 공익신고 기관이 다양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법률이 광범위하므로, 신고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일본·영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비교

구분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통보자 보호법(일본)	공익신고법(영국)
신고주체	누구든지	기업의 근로자 일반공무원	기업의 근로자 일반공무원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 자이익·공정한 경쟁 ※벌칙·행정처분 대상 위법행 위(180개 법률)	개인의 생명·신체 보호·환경 보전·소비자이익 옹호·공정한 경쟁 확보 ※약 430개 법률 위반행위	범죄행위·법적준수의무 위 반·부정행위·근로자의 건 강·안전 위협
신고처	기업,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국회의원, 공공단체	기업, 행정·감독기관, 기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업(1차)→정부기관(2차)→ 대외 제보(3차)
신고방법	인적사항 기재 및 증거제출	별도 방법 미규정	별도 방법 미규정
신고요건	허위·부정 목적 신고 배제	허위·부정 목적 신고 배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 리적 믿음
처리절차	기업은 조차방안 마련(신고자 동의 시 다른 접수기관 송부 가능) 행정·감독기관은 조사 및 조 치 실시, 권익위는 확인 후 조 사, 수사기관에 이첩, 국회의 원·공공단체는 다른 접수기 관에 송부	별도 처리절차 없음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	별도 처리절차 없음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
보호사항	신분 비밀보장·신변보호·보 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 권고 ·민형사상 책임감면 등	해고 무효, 파견계약 해제 무 효 등 원상회복·불이익취급 금지	부당해고 등 불이익금지·노 동법원 판결 시까지 신분보 장·신고금지 규정의 무효
보호절차	권익위에 보호 요청	민법 등에 따라 재판청구	노동법원 제소
지원제도	보상금(상한 10억원) 및 구조 금 등을 규정	보상금·구조금 제도 없음	보상금·구조금 제도 없음
강제규정	보호의무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 등	강제·제재 조항 없음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배상 판결 가능(상한액 없음)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제도운영의 기틀을 제시하는 정책기관이자 신고사건 처리 등에서 모범을 보여 주는 집행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익신고 접수·처리 전담 인력 등 제도운영을 위한 실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인중 과장은 “특히 법 시행 이후 8월 말 현재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총 909건인 반면 심사전담인력은 2명이라 월 평균 약 83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특히 공익신고의 경우 180개 신고대상 법률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공익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과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만큼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11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캠페인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1주년을 맞이해 9월부터 11월까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캠페인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웹사이트 이용이 많은 2040세대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모바일의 경우 배너를 클릭하면 동영상 ‘아빠와 아들’ 대화와 웹툰(11편)을 볼 수 있으며, 웹사이트의 경우 배너를 클릭하면 웹 프로모션 페이지가 열려 1주년 기념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공익신고 정책홍보 콘텐츠를 접할 수도 있다.

1주년 이벤트(9월 24일~10월 31일)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빈칸채우기 게임, 제도 바로알기 플래시 〇×퀴즈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된다.

청렴교육센터 청주서 10월 문 연다

연수생 300여 명 동시 수용... 내년엔 지방 교육생 위한 숙소동도 건립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국가청렴도 제고의 요람이 될 청렴교육센터가

10월 15일부터 구(舊) 청주지방법원 부지에서 10월 과정을 시작한다. 청렴교육센터는 300여 명의 연수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2013년에는 5000여 명의 교육생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대학생, 기업인, 시민단체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청렴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글·권세진 기자

지속적·체계적 청렴교육을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의 요람이 될 청렴교육센터가 청주에서 10월 15일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호에 근거해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해 왔다. 권익위는 그동안 서울 서대문구 임광빌딩 2층 공간을 임대해 연 2700여 명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2009년부터 확대이전을 추진해 왔다.

시간적·공간적 제약 극복... 전문교육 확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옛 청주지방법원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문을 여는 청렴교육센터는 부지면적 1만6928.12㎡, 건물 연면적 3224㎡ 규모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지어지며 300여 명의 연수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내년에는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에서 온 여성·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숙소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청렴교육센터에서는 10월 15일부터 ‘지역공직자 과정’을 필두로 청렴교육을 시작하여 2013년에는 연간 교육생 5000명을 목표로, 추후 연간 1만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반부패·청렴교육은 교육대상기관이 포괄적이고 대상자가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 계층의 일반국민으로 다양한

한정된 공간에서 시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또 국방과 세무, 건축 등 전문성이 있으면서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불가피해 청렴교육이 더욱 전문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청렴교육은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3일 이상의 장기간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 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2003년부터 타 교육기관에 위탁운영 협의를 추진했으나 강사와 콘텐츠 부재 등으로 불가능함이 판명되어 교육공간만 임차운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단독 청렴교육센터 개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

청렴교육센터는 반부패·청렴 전문가를 교수 및 연구요원으로 확보해 공직자 청렴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설과 건축, 계약, 예산집행 등 21개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참여형 학습, 전문가 특강뿐만 아니라 청주라는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한 청렴유적지 방문 프로그램(이순신 장군·동학혁명 유적지·독립기념관)을 개발하고 과학적 행태분석(DISC, MBTI 등)을 통해 교육생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 청렴교육 원격연수센터 구축으로 동시접



속 규모 3000명 이상, 연간 9만명의 사이버 교육생을 배출할 수 있게 되어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특히 시·공간적 제약이 많은 공직자들에게도 청렴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대학생, 기업인, 시민단체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청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청렴교육, 청렴 전시회, 어머니 청렴교실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한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

청렴교육센터는 향후 2020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2011년 국가청렴도 43위)이라는 비전하에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렴교육센터는 강의실과 사무실, 식당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중 숙소동 개발과 조경 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청렴교육센터 출범으로 임대료 절감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30분 거리(28km)로 가까워지는 만큼 이에 따라 예산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청렴교육센터 출범으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한 맞춤형 반부패·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반부패·청렴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청렴교육은 물론 외국 기관 및 단체에 청렴기술 전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교육과정 운영 등 국민 권익 증진과 국적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교육센터 개원식은 국회일정 등을 고려하여 10월말 또는 11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인기드라마 ‘넙쿨당’에 권익위가 떴다고?

촌지·보이스피싱 등 생활 속 문제 알기 쉽게 풀어내

시청률 40%를 넘어서는 인기를 얻으며 ‘국민드라마’ 반열에 등극한 KBS2TV의 주말드라마 <넙쿨째 굴러온 당신>의 성공 비결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보는 것같이 친근하면서도 매력적인 등장인물들과 삶의 희로애락을 맛깔나게 아우르고 있는 다양한 이야깃거리에 있을 것이다. 특히 ‘촌지’나 ‘보이스피싱’ 등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내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재미와 함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줬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글 이윤진 기자

차윤희 율케의 촌지 거절

부패신고포상금 대상 교사생활에 오점 남길 뻔

#1 <넙쿨째 굴러온 당신>의 주인공 차윤희(김남주 분)의 율케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민지영(진정 분)에게 쿠키바구니가 선물로 들어온다. 유학을 앞둔 제자의 학부모로부터 온 감사의 선물. 그런데 쿠키바구니 안에는 감사 편지와 함께 촌지봉투가 들어 있다. 이를 둘러싸고 가족들 간에 설전이 벌어진다. “유학 가기 직전에 보낸 것이니 대가성 없는 순수한 감사인사”라는 시어머니(김영란 분)의 주장에 촌지를 받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듯했지만 결국 ‘청렴교사로서의 마음을 다잡고 촌지를 거절하기로 결심한다.

민지영이 쿠키바구니를 받은 뒤 만약 시어머니의 의견대로 ‘감사한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면 극중 모범교사로 나오는 민지영의 교사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부패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대상이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패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 부패들에 대해 ‘관행’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도록 경계심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올 5월부터는 ‘촌지 수수’ 같은 소규모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일상 속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드라마 속 상황과 동일한 사례가 적발된 적도 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케이크와 함께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는데, 이를 목격한 케이크 가게 종업원이 신고해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생활 속 부패행위가 신고제도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고궁의 의장행렬에서 의장복장을 하고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대학생은 행사 운영재단 직원이 아르바이트생 채용인원과 근무상황을 조작한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했다. 이 신고로 재단 직원이 인건비 41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져 곧바로 환수됐고, 신고자는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걷기대회를 개최한 한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회 광고비를 중복해 받아 정부지원금을 횡령했는데, 이를 알아챈 대회 참가자의 신고로 275만원의 부당 수령액이 환수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선 향후 2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제재조치가 가해졌다.

포상금 제도는 정부 예산 편취나 교사, 공무원들의 촌지 수수 등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소소한 부정행위들을 보고 눈을 감는 대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를 감행하는 용기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다. 이를 계기로 생활 속 부패행위들에 대한 활발



110 콜센터에서 상담 가능한 업무

구분	세부 내용
일반 민원 상담	관공서 안내,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새 주소, 여권, 자동차등록, 운전면허, 학교행정, 교육, 병무, 보훈, 건설공사, 주택 건축 인·허가 절차, 민원기관 안내, 정부통계 등 모든 행정 사무
사회안전망 상담	일자리 안내, 기초생활수급, 사회복지, 노인복지, 서민금융 지원, 소상공인 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채무 등
세금·공공요금 상담	양도소득세, 상속세, 관세, 취득세, 주민세, 유가환급금, 벌금, 과태료, 수도요금 등
생계침해신고 상담	불법 사금융, 임금체불, 과다소개로, 불법 직업소개, 취업사기, 금품착취, 불공정 계약, 성폭력 피해, 보이스피싱, 교통불편 신고 등

한 신고가 이뤄진다면 넙쿨당의 가족들처럼 ‘돈으로 표현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선진화된 시민 의식을 이루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아버지의 보이스피싱 위기

차윤희의 기지로 110 콜! 피해 없이 해결돼

#2 차윤희의 시아버지 방장수(장용 분)는 아내 엄창애(윤여정 분)가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며느리가 “이럴 때 신고하는 데가 있다”며 기지를 발휘한 덕에 위기를 모면한다. 차윤희가 신고한 곳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110 콜센터. 110 콜센터의 도움으로 시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윤희 가족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가족의 납치, 또는 사고를 위장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윤희처럼 110 콜센터(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로 전화를 하면 된다. ARS 기계를 없이 곧바로 상담원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상세한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평의도용 방지 서비스’와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은행 ‘지급정지 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후라도 금감원과 경찰에 연결되어 신속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10 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은 1만148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무려 11억여 원에 달한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검찰, 경찰, 은행, KT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여 보험금 환급금이 있거나 시골 조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돈을 요구한 사례, 드라마처럼 가족을 데리고 있으니 거액을 입금하라는 협박 등의 내용도 많았다.

110 상담은 110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가능하다.



김홍기
한국소비협회 회장·시인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고, 사물에 대한 의견이다. 그래서 십인십색(十人十色)의 의견이 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은 많은 적든 의견의 노예다. 자신의 의견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남을 설복시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설복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지나친 의견이란 못질과 같아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자꾸 깊이 들어갈 뿐이다. 참된 의사소통은 인내와 시간이 저절로 밝혀 준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홍보자문위원인 교수 및 현업전문가 풀을 통해 국민들과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유지해 왔다. 또한 블로그를 중심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위키트리 등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소통협회에서 권익위의 블로그 및 SNS에 대해서 인터넷 소통 경쟁력 1위로 평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홍보자문위원인 교수 및 현업전문가 풀을 통해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유지해 왔다. 특히 2008년 출범 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는 독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꾸준히 개선되었다. 의사소통은 이제 정보 제공과 합리적 의사결정 수단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의사소통이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공감하는지 여부를 정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시기이다.

조직은 규모와 상관없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의사소통이 필수다. 정보의 제공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갈등해소의 수단과 조직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해야 진정한 의사소통

지역별로 꾸준히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 청렴홍보단과 블로그 기자단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위원회 출범 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 〈국민권익〉도 독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꾸준히 개선되었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기사 및 디자인의 질적 향상도 안정화되었다. 또한 소식지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모바일 앱을 배포하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 무료 e북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동과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효율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협동과 조정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의사소통은 협동의 전제조건이며, 조정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의사소통은 공기나 음식처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 동시에 어떻게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마술 같은 존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실한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적합한 메시지와 전달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단순히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의사소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공감하는지, 궁극적으로 의도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가 바로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중요한 시기이다.



일러스트 이철원



공 / 감 / 누 / 리

이렇게 바뀔니다 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로스팅 가공국가
출산허가 중 못 받은 급여도 임금에 해당

조사관의 현장이야기 - 국토해양심판과 김세진 60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명예

인터뷰 - 오준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장 “행정처분이 억울하면 오세요 국민의 편에 서서 심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일해요 - 민원분석심의관실 국민과 정부 소통 돕는 늘 깨어 있는 ‘귀’와 ‘눈’

글로벌 권익위 몽골과 반부패 경쟁력 평가 활용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 옴부즈만과 MOU 체결

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로스팅 가공국가

출산휴가 중 못 받은 급여도 임금에 해당

시중에서 판매중인 원두커피, 즉 ‘볶은(roasted) 커피’의 원산지는 커피콩 생산국이 아니라 실제로 커피에 맛과 향이 결정되는 ‘로스팅(roasting) 가공’을 시행한 국가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또 출산휴가 중 받지 못한 급여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출산휴가의 취지상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로 인해 출산휴가 중 회사가 도산하여 출산급여를 받지 못해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글·권세진 기자



일러스트 박성훈

권익위 ‘애정남’, 애매한 커피·홍차 원산지 정리

시중에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커피원두는 대부분 생두(生豆:볶지 않은 커피콩)가 아니라 로스팅(roasting) 과정을 거친 ‘볶은 커피’다. 볶은 커피의 판매자가 커피의 원산지로 로스팅 가공처리한 국가를 표기했다면 불법일까. 커피제품의 원산지는 ‘로스팅 가공국’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커피와 차를 수입하는 업체 S사는 커피원두제품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기해 수입·판매했는데, 세관에서는 S사에 898만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커피콩의 생산지인 스리랑카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로스팅을 했다는 이유로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허위 표기했다는 이유이다. S사는 이에 대해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원산지 허위 표시라는 이유로 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중앙행심위는 ▲커피의 로스팅 가공은 커피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하여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는 점 ▲커피 생두는 로스팅 가공을 거친 후 제품 분류번호가 바뀌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지식경제부가 이미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으로 변경했는데, 세관은 “S사가 수입한 제품의 선적일이 새 기준의 적용시점을 벗어났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중앙행심위는 “이미 기준이 바뀐 만큼 S사에게만 다르게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홍차제품의 경우 찻잎 생산국에서 이뤄지는 발효과정이 실질적 변형 과정인 만큼 찻잎 생산국과 블렌딩 가공국 중 찻잎 생산국을 원산지로 봐야 한다고 중앙행심위는 재결했다.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도 임금에 해당” 결정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이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체당금을 줄 수 없다고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체당금)되어 있다.

청구인 김모씨는 2006년 10월에 입사해 2010년 5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왔다. 2010년 6월 다니던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김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했다.

김씨의 신청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은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의 대가에는



일러스트 박성훈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게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임산부의 의지에 따라 출산 시기를 조절할 수 없는데도, 출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체불 임금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면 임신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지방고용노동청이 산전·산후 휴가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한 급여에 대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은 전국에서 밤낮없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은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60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명예

6·25 전쟁 당시 경찰의 지시로 야경을 서다 인민군에 피살

“청구인의 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 징집되어 야경을 서다 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인 지방보훈청장은 청구인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함.’

6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60대 아들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이 거부되었다. 이유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고,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60대 아들은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해 왔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다. 1950년 9월 5일, 전라남도 완도 바닷가에서 한 남자가 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60여 년이 흐른 뒤 이 남자의 아들은 이 남자가 징집되어 야경을 서다 인민군에게 사살을 당했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국가가 징집했다는 서류 등 근거가 없어 등록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아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이 남자는 1950년 9월 5일 새벽 야경을 서다 섬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오던 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남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징집을 당하였

다거나 야경 중 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한창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경찰 등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일일이 징집문서를 작성하여 전해 줄 여유가 있었을까 싶다.

또한 그 당시 전라남도 일대에서 경찰로 근무하였던 차○○, 최○○이 상부의 지시로 젊은 청년들과 관공서 직원, 학교 교사 등을 치안 유지를 위해 동원하였는데, 이 남자 역시 고금지서로부터 징집되었다고 진술한 기록이 남아 있다. 또 이 남자와 동네 친구라는 문○○이 “경찰관의 지시로 20대 후반 청년들이 조를 짜 야경을 썼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새벽에 야경을 서다 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비교적 자세한 진술이 있었다.

이제 이런 진술 자료를 가지고 이 남자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몰군경’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진술의 신빙성만 확보된다면 이의를 제기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지의 사망 경위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진술해 줄 분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인 문○○ 어른신이 비록 아흔이 넘

은 노인이지만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부터 징집을 당해 야경을 썼고, 아직도 신체 건강하고 기억력에도 문제가 없으니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9순 노인의 증언 들으러 완도로 떠나

그리하여 나는 2011년 1월 12일 청구인과 문○○ 어른신이 살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으로 출발했다. 우선 60대 중반이 된 청구인을 먼저 만났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먼 친척으로부터 초등학교 교사인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야경을 서다 인민군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 뒤 언젠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어엿한 일가를 이룬 이제 더 늦기 전에 아들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전쟁 당시 전라남도 일대에서 경찰로 근무한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아버지가 징집되어 사망하였다는 진술을 받아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좌절되고 말았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히 마을 주민의 진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낙심한 그의 눈에 띈 것은 신청이 거부되면서 받은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였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해 보자는 심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했다.

문○○ 어른님께서 도착하셨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몇 번 대화가 끊기긴 하였으나, 아흔이 넘으신 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해 주셨다.

“전쟁이 나자 일반 청년 및 공무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경찰서에서 야간경비를 서도록 지시하여 각 조당 2명씩 5조가 야간 경비를 썼는데,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하여 그러한 지시를 문서의 형태로 통지받지는 않았습시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자신과 먼 친척뿐 되는 신○○이라는 사람과 한 조를 이루어 야간경비를 서다가 섬 건너편에서

고금면으로 배를 타고 진출하는 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그 시신은 신○○이 우선 봉발에서 거적을 만들어 임시로 덮어 두었습니다. 당시 인민군이 완도군을 점령하여 마을 청년들의 모임이 감시되었고 야간경비조도 자동 해산되었기에 마을 청년들이 청구인의 아버지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인민군이 물러가자 신○○ 등 청구인 아버지의 친척들이 청구인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여 간단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진술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나는 서울에 돌아와 이러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신빙성 높은 진술 토대로 심판청구 인용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진술

과 문○○ 어른신의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남자가 경찰의 지시로 야간경비를 서던 중 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후 아들은 이제 여한이 없노라,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다. 아들에게는 또 서른이 넘는 아들이 있다. 이 서른 갓 남은 아들은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한 일은 완도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여 보고한 것뿐인데 우리 근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3세대의 슬픔과 기쁨을 옆에서 듣고 보게 되었다. 이 가족의 지난 아픔이 힘들게 되찾은 선친의 명예로 조금은 위로받기를, 그로 인해 영혼이 평온을 누리길 조용히 기도한다.

오준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장

“행정처분이 억울하면 오세요 국민의 편에 서서 심판합니다”

행정심판은 잘못된 행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각종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현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 등 연간 3만건 내외의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오준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에게 직접 들었다.

글·서철인 기자 / 사진·김승완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법제처 소속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있다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었고, 201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도 바뀌었다.

오준근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후 두 번째 수장이다. 오 위원장은 성균관대 법대와 독일 콘스탄츠대를 거쳐 서울시 의회 입법 법률고문, 방송위원회 행정심판위원, 경희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한 행정법 전문가다. 법제처 소속 시절까지 역대 중앙행심위 수장 중 행정법 전문가가 그가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오 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청구인들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는 ‘순회구술청취’를 실시하는 한편, 청구 절차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많은 힘을 쏟아 왔다.

행정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심판은 영업정지든 면허취소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에 대해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구체책은 국가별로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세계 어디서나 운영되고 있지요.

가령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청문회를 거쳐 처분하는 미국식이 있고, 일단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부당 여부를 심판하는 독일식이 있습니다. 독립위원회를 만든 후 국민들이 청구한 행정심판 건을 모두 모아 최종 결정하는 영국식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에는 독



일식이었지만 지금은 영국식 행정심판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행정심판 제도가 도입된 것은 언제인가요.

“우리나라는 해방과 동시에 ‘소원법’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심판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소원수리’라고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문고 역할을 했지요. 이 제도가 1984년까지 유지되다가 행정심판 제도로 바뀌면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만들어졌지요. 이때의 행정심판은 부처별로 재결청이 있어서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과 함께 중앙행심위로 통합됐고, 그 힘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막강합니다.

중앙행심위는 국민 편에서 대법원 역할을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심을 거치면서 판결까지 5년이 걸릴 사안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오면 90일 안에 판결받을 수가 있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말입니다.”

행정심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 기관은 우리 위원회 말고도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일반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진행되는 행정심판이 한 해 5만여 건에 이르지요. 이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3만건 정도 됩니다.

사건별로 분류해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음주단속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이고, 그 다음이 불법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입니다. 이 중 행정 처분이 누가 봐도 억울하고 부당하거나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가혹할 경우 구제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취임한 지 1년 반입니다. 그동안 역점을 둔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행정법 전문가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지도 할 일이 많았어요.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매뉴얼 작업을 하고, 매주 500건씩 접수되는 사건을 분야별·난이도별로 분류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도 구축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행심위에서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위원회나 유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위원회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50개 이상의 행심위가 온라인상에서 모든 행

정심판 절차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 소관 위원회와 무관하게 향후 구축될 ‘행정심판 허브포털’ 한 사이트만 방문하면 각종 절차 안내, 진행상태 자동안내, 정보검색, 상담, 청구서·신청서 작성, 재결서 수령 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구제조치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임시구제조치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에 규정돼 있는 임시구제제도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계속됩니다. 그로 인해 국민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처럼 집행정지제도는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처분 이전의 상태를 소극적으로 유지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행정청의 부작위 등으로 인한 권익침해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 임시처분제도입니다.

임시처분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집행정지제도를 보충해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행정처분에 대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저희는 중립자적 위치에서 냉정한 판단을 하는 판사와 달리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가슴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과 정부 소통 돕는 늘 깨어 있는 '귀'와 '눈'

“국민 목소리를 잘 듣고 잘 전달하는 일이 우리의 임무”

카페가 밀집한 전국 변화가에서는 주말 오후가 되면 카페마다 가득한 사람들이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운다. 커피보다 대화와 소통에 더 목마른 대한민국 국민들. 이번 호 <국민권익>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여러 부서 중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부서, 민원분석심의관 소속 국민신문고담당관실과 민원정보분석센터를 찾아봤다. 글과 사진·남창희 기자

국민신문고담당관실 대한민국 정부기관 대표 민원창구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위반한 차량 때문에 위험한 적이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니 경찰서에서 해당차량을 추적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민신문고에서는 해결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확실하다. ㅎㅎ”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한 네티즌이 국내 한 인터넷 자동차 카페에 올린 글이다. ‘ㅎㅎ’은 후덜덜의 초성만 따 일종의 은어로 놀라움이나 두려움을 나타낸다.

일일접수민원 약 3000건. 정부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등 총 689개 정부기관을 대표해 민원을 접수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해당기관에서 법규에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했는지 민원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민원제기자 의 만족도까지 확인하며 2005년 시범운영 이후 오늘날 대한민국 대표 민원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업무가 민원접수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원창구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담당관' 직원들.

국정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국민제안’의 경우 2006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56만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이 중 1만4000건(국민제안 1만건, 공무원제안 4000건)이 채택, 정책에 반영됐다.

이밖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신고하는 ‘예산낭비신고’, 부패사건이나 공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신고하는 ‘부패·공익 신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도 접수한다.

국민신문고담당관실 최해일 주무관은 국민신문고를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접점”으로 묘사했다. “국민이 정부와 만나고 싶



민원정보분석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1만건 정도의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을 때, 혹은 문제가 생겼지만 어디로 가서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창구가 바로 국민신문고입니다.”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 국민 민원제기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대폭 완화한 국민신문고. 2010년부터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의성도 더욱 높였다.

또 올해부터는 언어적 제약도 한층 줄었다. 재외 국민을 위한 ‘글로벌 e민원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것이다.

글로벌 e민원 시스템은 현지 언어와 행정체계가 익숙하지 않은 재외 국민을 대신해 외국 정부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예전대 태국에 진출한 사업가가 공장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태국 정부당국 대신 국민신문고에 한국어로 민원을 접수하면, 국민신문고에서 이를 태국어로 번역해 태국 정부당국에 전달하는 식이다.

서비스 가능 국가는 9월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3개국이며, 향후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민원정보분석센터 민원 분석해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국민신문고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귀’라면, 민원정보분석센터는 접수한 민원을 세심하게 살피는 ‘눈’ 역할을 한다. 국민신문고 외에 110 콜센터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는 총 민원은 하루 평균 1만 여건. 민원정보분석센터에서 이를 동향분석과 이슈분석으로 파악한다.

“동향분석은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민원내용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 불라벤이 우리나라로 접근했던 8월 27일에는 휴교, 휴업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들었던 28일에는 침수상황 민원이, 29일에는 태풍피해에 대한 보상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정보분석센터 장대환 사무관은 “이처럼 민원을 분석하면 사건별, 일자별로 국민들에게 절실한 행정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주간 민원동향은 1주일 동안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민의 소리(민원)를 분석한 보고서로, 240여 개 정부부처(중앙, 광역)에 매주 수요일 제공돼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또 월별·지역별 민원동향은 시기별로 돌출되는 민원이나 지역 특성에 따른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는 데 한몫을 담당한다.

한편, 이슈분석은 사회적 이슈나 특정정책 관련 민원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올해 2월에는 학교폭력과 주 5일 수업제 관련 민원을 분석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제공했고, 4월에는 2011년부터 접수된 결혼 관련 민원을 집중 분석해 예식장 측의 과다·불필요한 비용 요구, 신혼여행업체의 추가요금 강요·계약위반 상황을 짚어 냈다. 이는 관계부처에서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신문고와 민원정보분석센터 근무자들은 모두 30여 명 내외. 하루 1만여 건의 민원사항을 분류해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사안별로 분석해 정책기초자료를 만들기에는 빠듯한 일손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 내실 있는 국정운영의 기초를 닦는다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모니터 앞에서 씨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몽골 부패방지청(IAAC) 대표단을 초청하여 반부패 경쟁력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패유발 요인 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 등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로 권익위(구 국가청렴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권익위와 IAAC 간 2010년 2월 체결한 반부패 협력 MOU 이행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붓자브 바트 오토건(Bodjav Bat-Otgon) 부패예방 및 홍보부 부장을 비롯해 몽골 부패방지청 대표단 3명이 참석하였다.

권익위는 이들에게 반부패 경쟁력 평가 세부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절차, 운영체계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2011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여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윤리경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향후 반부패 경쟁력 평가의 몽골 현지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몽골 대표단은 “연수기간 중 학습한 내용에 대해 몽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반부패 경쟁력 평가 제도가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운영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제도 도입 시 타기관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부패에 선도적인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우수사례 공유 차원으로 접근해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좋으며, 피평가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다.

한편, 권익위가 2010년에 전수한 청렴도측정 제도에 대해 몽골 대표단은 권익위 자문을 거쳐 2010년에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평균 2.77점으로 국민들의 기대치보다 1.36점 낮은 수



8월 28일 몽골 부패방지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 워크숍을 열었다.



최현복 부위원장이 한·몽골 관계자들과 협력회의를 갖고 있다.

몽골과 반부패 경쟁력 평가 활용방안 논의

권익위·몽골 부패방지청 워크숍... 반부패 정책현황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몽골 부패방지청과 함께 반부패 협력회의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워크숍을 열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몽골 부패방지청 관계자들은 권익위로부터 청렴도 평가, 반부패 정책 등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또 권익위는 우즈베키스탄 옴부즈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다양한 권익구제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권세진 기자



몽골 부패방지청 부패예방 및 홍보부 부장이 최현복 부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2012년 10월에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격년평가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로, 이메일 주소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2차 평가에 대비하여 분야별 점수 변동요인 분석 등 분석기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한·몽골 MOU 기간 2015년까지 연장

8월 28일 워크숍에 앞서 개최된 한-몽골 협력회의에서 권익위와 몽골 부패방지청은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하고 상호 주요 반부패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2010년 2월 체결한

MOU의 이행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정책 공유하고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옴부즈만과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6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옴부즈만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향후 상대국 재외국민 전용 민원접수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며, 현지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권익구제방안이 세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원처리 관련 정책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 워크숍·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고충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약 300만명에 달하는 외국 체류 한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외 옴부즈만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인도네시아(2010년 2월), 키르기스스탄(2011년 10월), 태국(2011년 12월)의 옴부즈만 기관과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9월 7일에는 필리핀 옴부즈만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 국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가들과는 해당국가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 해결 서비스’인 이동신문고를 상대국 옴부즈만 기관과 공동 개최해 재외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옴부즈만이 권익위를 방문, 110콜센터를 견학하고 권익위와 MOU를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옴부즈만이 국민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및 한국 체류 우즈베키스탄인 현황 (단위: 명)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			한국 거주 우즈베키스탄인		
계	재외동포	시민권자	계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173,600	2,300	171,300	29,704	24,414	5,291

옴부즈만 MOU 현황

체결일자	체결기관	협력회의 & 해외 이동신문고
2010년 2월 1일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서울 협력회의 (2010년 8월 31일)
		자카르타 협력회의 (2010년 11월 29일)
		자카르타 협력회의 (2011년 9월 27일)
		서울 협력회의 (2012년 4월 2일)
2011년 10월 12일	키르기스스탄 옴부즈만	키르기스스탄 해외 이동신문고 (2011년 10월 13일)
2011년 12월 5일	태국 옴부즈만	방콕 협력회의 (2012년 5월 16일)
		태국 해외 이동신문고 (2012년 5월 16일)



일러스트 이철원



소 / 통 / 누 / 리

권익위가 갑니다 강원도 강릉·동해·삼척 이동신문고 민원상담 현장

양양 현장조정회의 '50년 숙원' 도로 직선화 조정안 합의

국민권익이 만난 사람 '의문사' 김훈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

권익 더하기, 사랑 나누기 노인복지회관 점심배식 보조로 '땀 뻘뻘'

꼼꼼한 민원 상담에 주민들 “속 시원”

강원도 강릉·동해·삼척 이동신문고 민원상담 현장

현장에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 출동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지난 9월 12~14일 강원도 강릉·동해·삼척에서 열렸다.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지역방문 민원상담·처리 제도다. <국민권익>이 13일 강원도 동해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아갔다.

글·권세진 기자/ 사진·조준우 기자



이동신문고 상담반은 행정문화, 국방보훈, 복지노동,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민·형사 등 9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 조사관들은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담당 공무원들과 연계해 민원을 처리하는 등 고충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매일 전국을 찾아가고 있는 이동신문고는 9월 강원도 동해안 인근 도시인 강릉·동해·삼척에서 12·13·14일에 잇달아 열렸다. 권익위에서 9개 분야 상담반이 출동했으며 법률상담 분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릉출장소와 동해·삼척지소에서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3명을 지원받아 운영됐다.

13일 오전 10시, 이동신문고가 열린 동해시청 회의실 앞은 수십여 명의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대부분 지역신문에서 광고를 보고 이동신문고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온 시민들이었다. 동해뿐만 아니라 정선, 평창, 태백 등 인근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실업급여 등 다양한 민원, 관계기관과 협의

아침 일찍 이동신문고를 찾은 민원인 주OO씨는 “어느 곳에 문의해도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해 이동신문고를 찾았다”며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직장에 다닐 수 없는 형편이어서 얼마 전 직장을 그만뒀는데, 여전히 고용보험료도 납부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씨는 “다니던 회사와 고용노동청 등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봤지만 알아보겠다,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며 “언제 해결될 수 있는지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신문고는 주씨와 고용노동청 담당 부서를 연계해 조속한 해결방법을 찾기로 했다.

강릉에 거주 중이지만 전날 강릉 이동신문고 소식을 놓쳐 이날 동해까지 찾아왔다는 박태민(가명)씨는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다 부상을 입고 제대했는데 그 부대의 특수한 이유로 상이군경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에 문의해도 뚜렷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부상으로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상이군경 혜택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동신문고는 박씨에게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접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다.

민원인 홍혁수(가명)씨는 “집안 농장에서 소규모로 포도주를 양조해 와인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주류세가 30%로 과도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국산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소규모 신토불이 국산 와인에 대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비슷한 형편에서 비슷한 규모로 탁주를 생산하는 이웃은 주류세가 5%밖에 부과되지 않는데 와인이라는 이유로 3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류세율은 탁주 5%, 약주 및 과실주 30%, 맥주 72%로 와인은 과실주에 해당된다. 특히 한·미FTA 체결로 기존의

와인 관세(15%)가 철폐됐고, 앞으로 각국과 FTA 체결이 늘어날 경우 영세한 농가 와인 생산자는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해결 안 돼도 자세한 상담에 감명

이동신문고는 홍씨의 민원을 접수하고 “FTA에 따른 포도재배 농가 지원과 주류세 부과 형평성 차원에서 주류세 감면에 따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원웅(가명)씨는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 다급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해 양쪽 가족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줬으나 현재 채무자가 돈을 갚으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본인을 피하고 있다”며 “채무자의 가족을 비롯해 주변에 증인이 적지 않은데 이를 해결하고 빌려 준 돈을 받고 싶다”며 이동신문고를 찾았다. 박씨는 조사관이 사연을 경청한 후 “차용증이 없는 경우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고 채무자 쪽 증인의 증언여부, 채권자 쪽 증인의 증거채택여부 등을 고려할 때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받기 힘들다”고 답하자 실망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했지만 주변에서 법조인을 만날 수 없어 답답한 마음뿐이었는데 법무관이 꼼꼼하게 상담해 줘 마음은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연홍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상담민원 중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 담당자를 참여시켜 합의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며 “해결이 곤란한 사안인 경우에도 위원회가 최종 민원 해결기관임을 고려해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고 최대한 이해 설득시키려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신문고에서 고충민원으로 접수한 사안은 가급적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한 해당 조사관이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 나온 법무관이 주민의 법률 민원을 상담했다.

고충민원 현장방문 통해 해결방안 모색

한편 박재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동신문고팀은 이번 강원도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 민원상담반 운영뿐만 아니라 주요 고충민원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12일에는 ▲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도중 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 민원현장과 ▲LH공사의 사업조정으로 인해 2008년에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 입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를 찾아 민원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강릉 입암지구 집단민원의 신청인 대표 최웅순씨는 “2008년 국민임대주택 지구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입고



이동신문고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들.

있으나 LH공사는 대책 없이 지구지정 해제 또는 2015년 이후 사업 착수 중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고, 권익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이동신문고팀은 같은 날 주문진시장 내 강릉수산업협동조합을 찾아 수산업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13일에는 동해시 동해항 석탄분진 등 환경 피해 민원현장을, 14일에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 일원 LNG기지 조성현장을 방문해 민원인들을 만나 고충을 들었다.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과 최접점에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한다는 것이 이동신문고의 기본 임무”라며 “상담민원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진행상황 수시 모니터링으로 국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한 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국민신문고에 등록한다. 또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권익위는 지난 8월까지 38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213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인 240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36개소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14개소를 포함해 모두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올해 안에는 10월 전북(고창·정읍·부안), 11월 충남(공주·천안·아산), 12월 경남(밀양·김해·창원)에서 이동신문고가 열릴 예정이다.

‘50년 숙원’ 도로 직선화 조정안 합의

강현102호 농어촌도로·군도 1호선... 軍 차량에 의한 주민 피해방지 기대

50여 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왔던 군부대 인근 도로의 주민 안전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軍·民 간 합의점을 찾았다. 권익위는 9월 13일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지자체와 군, 경찰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조정안을 도출,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향후 위험한 도로가 직선화되고 주민들의 안전 역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권세진 기자 / 사진·조준우 기자



박재영 부위원장이 양양군 강현면 민원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현중학교 인근 강현 102호 농어촌도로와 군도 1호선이 교차하는 현장에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과 정상철 양양군수, 김태훈 육군 제102기갑여단장, 김중길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박인수 육군 제13항공단장, 조지호 속초경찰서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모였다. 농어촌도로 및 군도와 관련한 민원이 3개월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 수백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내용은 무엇일까. 도로 굴곡이 90도에 달하는 군도를 장갑차 등 대

형 軍 장비가 수시로 운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실무자에게 설명을 들은 후 강현면사무소로 이동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구불구불한 곡선도로로 교통사고 잦아

50여 년 전 개통된 강현102호 농어촌도로와 군도 1호선은 인근 육군부대의 높은 담장을 따라 구불구불 위험한 형태로 개설돼 있으며, 높은 부대 담장 때문에 운전자 시야가 제한되고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형편이다.

지역 주민 315명을 대표해 민원을 제기한 신청인 대표 김건수 씨는 “굴곡이 심한 도로에 軍 장비 통행으로 교통사고가 잦으니 농어촌도로 인근지역에 軍 차량의 도로운행을 통제하든지 강현 102호 농어촌도로와 군도 1호선을 직선화해야 한다”는 집단 고충 민원을 지난 6월 28일 국민권익위에 제기했었다. 김씨는 “지자체와 軍 등 피신청인들이 주민 보호와 도로 직선화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민원인과 국방부, 강원도, 양양군, 속초경찰서, 국방시설본부,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외에 인근 군부대인 육군 제13항공단, 육군 제102기갑여단 등에 고충민원 관련자료를 요청해 접수하고 현지 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7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와 군부대 관계자들을 만나 조정 및 협의에 나섰다.



현장 조정회의가 열린 강현면사무소에서 박재영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후 조정 관계자들이 현장을 나서고 있다.

軍, 안전상 문제해결 긍정 검토 나서

오랜 기간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 왔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인 만큼 조정이 쉽지 않았다. 정상철 양양군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두 도로의 직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軍 측의 입장은 다소 복잡했다. 도로 직선화에 軍 보안 및 안전 문제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해당부대, 시설본부 등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는 만큼 간단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태훈 육군 제102기갑여단장은 “두 도로가 비행안전 제1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직선화를 위해 부대 울타리를 축소할 경우, 비행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속초비행장 부대확장 계획이 있어 도로 직선화가 곤란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인근 515항공대대 이글루형 탄약고 이전사업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실행이 늦어지고 있어 이 역시 도로 직선화 공사를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였다.

또 국방시설본부 측은 사용부대의 장이 동의해야 관련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해당부대의 장은 “상급부대에 건의해 예산을 편성한 후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軍 내부에서도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이번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권익위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들은 7월 17일, 8월 2일, 8월 7~8일, 8월 23~24일 등 6일에 걸쳐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에 나섰다. 그 결과 1군사령부 항공과로부터 “속초비행장 부대확장 계획에 해당 도로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었고, 국방시설본부와 육군 제102기갑여단으로부터 모두 도로 직선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어 마침내 합의안

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9월 13일 현장조정회의 및 합의안 서명식을 실시한 것이다.

당사자들 모두 합의안에 이의제기 없기로

합의안은 강현102호 농어촌도로와 군도 1호선을 직선화하는 내용 및 예산을 편성한다는 전제하에 지자체와 軍, 관계기관 등이 실천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양군수는 ▲두 도로 직선화에 필요한 인근 군(郡) 소유 부지 사용을 허가할 것 ▲2013년 郡 사업계획에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직선화 사업을 편성 ▲도로 직선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도로 관리를 성실히 행하기로 했고, 육군 제102기갑여단장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은 해당 농어촌도로 및 군도 직선화 사업에 동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했다.

또 육군 제13항공단장은 도로 직선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515항공대대 이글루형 탄약고 이전사업이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될 수 있도록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탄약고 이전 사



9월 13일 강현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가 끝난 후 관계자들이 합의서를 들어 보이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업계획이 편성되면 탄약고를 이전한 후 관계기관들과 군도 1호 직선화 노선을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속초경찰서는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및 군도 1호선 직선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로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고지해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그 결과를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및 민원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민원신청인들은 이번 합의안 도출에 따라 軍 차량 및 장비의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및 군도 1호선 운행과 관련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민원 주민들 “권익위의 빠른 조정에 감사”

강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는 신청인,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이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음을 보여 줬다.

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조정회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근거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임원택 국방보훈민원과장은 “민원인들이 6월 28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후 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업무 협의를 통해 신청인들의 생활불편에 공감하고 군용차량과 일반차량 등 도로를 사용하는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후 민원신청인과 피신청인, 조정당사자(권익위) 모두가 조정안을 숙지하고 서명, 조정안에 합의했다.

조정이 끝난 후 민원신청인 대표 김건수씨는 50여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그동안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이번 사안을 권익위에서 현명하게, 그리고 빨리 조정해 주



현장조정회의에서 임원택 국방보훈민원과장이 현황을 설명하는 동안 민원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

감사하다”며 “조정 당사자들이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한 내용을 실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김중길 강원시설단장은 “전국에서 군(軍) 때문에 주민 생활이 불편하다는 유사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데, 軍은 언제나 주민 불편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軍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의 의미가 크다”며 “조정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익위도 조정내용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 김훈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

“순직 인정에 감사… 사인규명은 남았어요”

1998년 비무장지대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 ‘자살’로 발표된 김훈 중위에 대해 권익위는 “김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김 중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14년째 노력 중인 김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은 “권익위 조사관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꼼꼼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나서 감동했다”며 “국과수 공동 실험에 나서고 관계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나서 증언을 확보하는 등 이전의 어떤 조사과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태도를 보였다”고 권익위에 감사를 표했다. 글·권세진 기자



김척 예비역 중장은 “앞으로도 군 의문사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98년 2월 비무장지대(JSA)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고 김훈 중위(당시 25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최근 국방부에 권고했다.

고 김훈 중위는 당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상태로 발견됐지만, 군의 최초 현장 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초동수사로 지금까지 논란이 돼 온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실제로 초동수사 당시 미군과 군이 자살로 단정짓기 위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아들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14년째 백방으로 노력해 온 김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을 <국민권익>이 만났다.

김척 예비역 중장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군이 타살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건 현장의 시설 훼손과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을 간과했고, 유류품의 위치 실측과 현장 사진 촬영 등에 소홀했으며, 사건 현장과 사체의 사고 당시 상태를 미보존했다”며 자살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들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 및 소송을 계속해 왔다.

실제로 이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논란과 관련해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행해진 것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군 장성 출신임에도 10년 이상 노력 효과 없어

그는 김훈 중위가 의문사하기 석 달 전까지만 해도 1군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권익위원회를 찾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국방부를 상대로 10년 이상 싸웠으나 진전이 없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재조사해 순직 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군의문사규명위원회에서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는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본인이 장군 출신인데도 군과 관련된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까.

“그들 역시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이 상대할 수 없

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익위를 찾은 후 진전이 있었나요.

“처음부터 큰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닌데, 권익위 조사관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꼼꼼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나서 감동했습니다. 특전사 실내사 격장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총기 격발실험을 했고, 관계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나서 증언을 확보하는 등 이전의 어떤 조사과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태도를 권익위 조사관들이 보여 주었습니다.”

노력 끝에 ‘순직 권고’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살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전 어떤 기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결론이지요. 위원장 이하 권익위가 정부에 큰 영향력이 있는 조직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았던 일을 권익위에서 이렇게까지 해결해 줘서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순직 인정이 하루빨리 확정되길 바랍니다.

“사실 순직 인정도 감사하지만, 순직이 인정될 뿐 사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어요. 아들의 한을 풀어 줄 때까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권익위가 지난 5월 국방부에 군 의문사 순직 인정 권고를 했습니다. 김 중위 외에도 많은 병사의 유족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자체로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들도 자살이 아니지만 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인불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아직 자살이나 의문사, 순직 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모두 억울함을 벗을 때까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5월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권익위 권고에 따라 ‘전공사상 자처리 훈령’을 개정해 자살한 장병들에 대해서

도 순직처리를 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망원인도 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만 인정했다. 군 의문사와 같은 외부기관의 권고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도 군 조사 결과만 인정하던 태도 바뀌

현재 유족들이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에 반발해 찾아가지 않은 시신이나 유골은 129구에 이른다. 전국의 군 병원에 23구가 안치돼 있고, 화장한 뒤 군 ‘영현소대’에 보관 중인 유골이 106구다. 부검을 하면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화장해 유골 상태로 영현소대에 안치한 것이다. 김 예비역 중장은 “아들을 비롯해 의문사한 장병들이 불명예를 벗고 대한민국 군인으로堂堂하게 안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례식에서 꽃에 둘러싸인 김훈 중위의 영정.



단란했던 김훈 중위 가족의 모습.



1998년 12월 23일 김훈 중위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노인복지센터 점심배식 보조로 ‘땀 땀땀’

권익위 사회봉사동호회,
매월 둘째 토요일엔 영아목욕봉사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한낮 더위가 아직 기세를 떨치던 9월 12일 오전 11시 5분, 국민권익위원회 로비에 권익위 직원 다섯 명이 모였다. 이들은 서둘러 걸음을 옮겨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아현노인복지센터를 향했다. 이들은 11시 20분쯤 노인복지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서둘러 지하에 있는 식당과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1시 30분부터 마포구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배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미 센터 밖에는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지어서 있었다.

배식이 끝나는 12시 30분까지 무료배식을 받으려는 분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봉사자들은 잠시 쉴 틈도 없이 어르신들께 식사를 드리고, 밥과 반찬을 보충해 드린 후에는 다 드신 식판을 가져오고 식탁을 닦았다.

노인복지센터에는 상근 자원봉사자와 권익위와 다른 기업에서 나온 자원봉사자



식당의 기차



식당의 기차

등이 2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밀려드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아 배식과 설거지 등 뒷정리를 자원봉사자들이 겨우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센터의 점심 식사 시간은 바쁘게 돌아갔다.

두 시간 내내 열기가 가득한 주방과 식당에서 봉사를 마치고 난 권익위 직원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됐지만 표정은 밝았다. 권익위 사회봉사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사회복지심판과 정미란 사무관은 “노인복지센

터 배식봉사는 올해 초부터 시작했고 배식 보조와 식당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원봉사할 곳을 찾던 중 거리가 가까워 점심시간을 이용해 봉사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곳을 매주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달에 한 번은 사무처장 직접 참석

권익위 사회봉사동호회는 2008년 7월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과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아현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강남구 역삼동 대한사회복지회 서울영아일시보호소에서 목욕봉사를 한다. 아기 목욕 전후에 옷 벗기고 입히기, 우유 먹이기, 놀아주기, 아기방 청소, 아기빨래 개기 등 봉사를 위해 평균 4~5명이 참가한다.

올해 동호회 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직원은 30여 명에 이르고 6월부터는 사무처장도 한 달에 한 번씩 배식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미란 사무관은 “간부들의 봉사활동 참여도가 높다”며 “현재 복지센터에서 요청한 인원 정도만 참가하고 있지만, 향후 봉사 대상 및 인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기자



일러스트 이철원



일러스트 이철원



행 / 복 / 누 / 리

여행 정선 만항재 '산상의 화원'

시네마 토크 <본 레거시>

건강 다이어리 '총알 식사'는 건강의 적, 고지혈증·비만을 부른다

역사속 권익 조선시대 분경금지법, 청탁행위를 근절하라!

스포츠 이란과 원정경기 필승카드를 찾아라

컬처&컬처 가을 자라섬은 재즈로 물든다

특독 추석 명절 스트레스 앱으로 한 방에 날리자

이 한권의 책 <키로파에디아>

뉴스&피플

독자와의 대화

정선 만향재 '산상의 화원'

해발 1330미터 정상 구름 위로 가을을 걷다

가을이 왔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정선이다. 새비재와 정암사를 지나 만향재에 닿기까지 낭만 가득한 가을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집 외이어와 레일바이크 등 짜릿한 레포츠 체험도 기다린다. 곤드레밥, 콧등치기 국수, 황기죽발 등 정선의 먹을거리도 여행을 풍성하게 해준다.

글과 사진·최갑수 (여행작가)

중앙고속도로 제천IC로 나와 38번 국도를 따르면 영월을 지나 정선 신동 삼거리에 닿는다. 여기에서 함백, 예미 방향으로 가는 421번 지방도를 타면 새비재로 향한다. 길은 S자로 비틀거린다. 스쳐가는 산에 심겨진 나무들은 죄다 전나무며 낙우송이다. 그 사이에 언뜻언뜻 흰 자작나무숲이 섬처럼 떠 있다. 창문을 내린다. 차속으로 들이치는 바람이 차다. 살갓에 소름이 오소소 돈다. 어느새 가을이다.

새비재는 일대 산세가 새가 날아가는 형상이라 해 붙은 이름이다. 전지현과 차태현이 주연한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배경무대였다. 영화에서 '그녀'(전지현 분)가 '견우'(차태현 분)와 함께 타임캡슐을 묻었던 곳이다. 당시 영화에 등장했던 '엽기 소나무' 주변에 타임캡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타조알처럼 생긴 캡슐에 추억의 물건들을 담아 100일, 1년, 2년, 3년 가운데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묻어 두고 나중에 열어 볼 수 있다고 한다.



새비재는 국내 대표적인 고행지배추 산지다.



새비재~함백역~수리재 환상의 고산 드라이브

공원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괜찮다. 새비재는 해발 850m밖에 되지 않지만 공원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1000m급 못지않다. 정선 최고봉인 두위봉(1466m)을 비롯한 고산준봉들이 사방으로 어깨를 걸고 물결친다.

이 풍광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다. 새비재는 정선의 대표적인 고랭지 배추밭. 이제 막 배추를 심은 푸른 배추밭과 수확을 끝낸 황토색 배추밭, 옥수수밭, 메밀밭 등이 어울려 패치워크 작품을 보는 것만 같다. 새비재는 강원도 태백 귀네미마을, 강릉과 평창의 경계에 있는 안반덕 등과 함께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이름난 명소다. 이 풍경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전의 수고를 들일 만하다.

새비재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서 있는, 노란색 칠을 한 예쁜 간이역과 만난다. 함백역이다. 1957년 3월, 영월~함백을 잇는 함백선의 개통과 함께 문을 열었다. 정선군의 첫 철도역사로 함백광업소의 엄청난 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가장 긴 나선형 터널(2.6km)이 있는 곳이기도 했고 함백과 영월을 잇는 함백선의 유일한 역이기도 했다. 당시 개통식 때 주요 장관과 주미 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함백역을 나와 수리재를 넘는다. 길은 뱀의 꼬리처럼 굽이치며 달아난다. 오른쪽 차창으로 고원의 풍경이 펼쳐진다. 발 아래 산의 능선을 거느리고 달려가는 기분이 상쾌하다. 근두운을 타고 반공을 주유하는 손오공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다. 이 기분 때문에 드라이브를 떠난다.

수리재를 내려온 길은 정선 남면에서 38번 국도로 바뀌고 다시 고한읍에서 414번 지방도로 바뀐다. 이 길을 따라가면 정암사를 지나 만항재에 닿는다. 만항재를 넘어서면 내치 영월로 갈 수도, 태백으로 갈 수도 있다.

정암사는 신라 선덕여왕 14년(645)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국내 5대 적멸보궁 중 하나다. 종각 뒤로 돌아가면 적멸궁이 있다. 적멸궁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 항상 머물러 계시는 궁전'이라는 의미다.

정암사는 풍경을 흔들며 고요히 자리하고 있다. 절 처마에는



병방치 스카이워크. 동강을 발 아래로 굽어볼 수 있다.

가을 햇빛이 오글거리며 모여 있다. 법당에서 스님의 목탁소리가 흘러나온다. 합장하고 적멸궁을 들여다본다. 수미단에는 불상이 없고 방석만 있다. 부처의 진짜 몸이 있으니 따로 상을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 진신사리는 이곳이 아닌 적멸궁 뒤편 수마노탑에 봉안되어 있다. 냇물 건너 단풍나무숲으로 난 돌계단을 7~8분 정도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수마노탑은 마노석으로 지은 벽돌탑인데 상륜부에 청동장식을 한 7층 모전석탑이다. 여기에선 정암사의 아늑한 정경 너머로 고한이 멀리 내려다보인다.

정암사에서 만항재가 지척이다. 10여 분이면 지날 수 있는 짧은 길이지만 이번 드라이브의 하이라이트라고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길은 심전도 눈금계처럼 좌우로 요동치며 앞으로 나아간다.

차로 달을 수 있는 최정상 야생화 정원

만항재가 가까워질수록 창 밖의 풍경도 바뀐다. 소나무와 전나무는 사라지고 짙은 녹색의 낙엽송들이 늘어난다. 흰칠한 키의 낙엽송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달리는 기분이 상쾌하기 그지없다. 북국의 어느 나라를 달리는 느낌이다.

만항재 정상은 해발 1330미터. 우리나라에서 승용차로 오를 수

있는 포장도로 중 가장 높다. 구름도 쉽사리 이 고개를 넘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운무 속을 주유하는 듯한 기분도 맞볼 수 있다. 만항재는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석탄을 나르던 고갯길이었다. 더 옛날엔 정선의 고한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어 태백의 황지를 거쳐 봉화의 춘양까지 가서 소금을 사 왔다. 얼마나 험하고 먼 길이었는지 소금 한 가마를 지고 고한에 돌아오면 소금이 녹아 반 가마도 채 남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만항재 정상에 이르렀다. 정상은 꽃밭이다. '산상의 화원'이란 이름으로 약 10만 평의 야생화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꽃들이 만발한다. 산나리며 노랑투구꽃, 어소리, 자주꽃방망이, 산솜방망이, 동자꽃 등 이름처럼 예쁜 꽃들이 핀다. 아마도 세계에서 자동차로 달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원일 것이다.

함백산 정상까지 차로 갈 수 있다. 정선 쪽에서 만항재 정상에 닿기 직전, 왼편으로 나 있는 태백선수촌 분촌 팹스를 보고 사잇길로 접어들어 달리다가 다시 갈림길이 나오면 왼쪽 길을 택하면 된다. 시멘트 포장도로가 나 있는데 정상의 방송중계소 운영 때문에 놓인 것이다. 일출을 보기 위해 찾는 사람이 많다. 정상의 바람이 세차다. 옷차림에 신경써야 한다.

지난 6월 23일 병방산 정상에 자리한, 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아

찼한 절벽에 스카이워크가 설치됐다. 해발 583미터. 말굽형으로 만들어진 스카이워크를 따라 동강 하늘 위를 걸어볼 수 있다. 바닥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스카이워크에 오르면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린다. 집 와이어도 타 보자. 병방산 정상에서 아래까지 1.1km 길이로 설치된 집 와이어는 알래스카 집 와이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가장 길다.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미끄러지듯 내려간다.

레일바이크도 빼놓을 수 없다.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 사이 7.2km 구간을 달린다. 굽이굽이 흐르는 송천을 따라 한적한 시골 마을 지개골, 흥터 유원지를 지난다.

정선은 동강 상류인 조양강과 평창강이 흐르는 수상교통의 요지였다. 골지천에서 내려오는 아우라지에 뗏목을 띄워 한강으로 물길여행을 하던 떼꾼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장이 열렸다. 정선 5일장은 몇 년 전만 해도 너른 마당에 천막을 친 전형적인 재래시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지붕을 얹고 '신식'으로 새 단장했다. 옛날 5일장만큼 흥취는 덜하지만 장꾼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산에서 막 따온 두릅과 나물취, 곰취, 참나물, 신선초, 고사리, 유리대 등을 가지런히 쌓아 두고 앉아 있는 할머니부터 '골라'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는 장돌뱅이 등 시골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장 한쪽에 먹자골목이 있는데 콧등치기 국수, 메밀전 등 정선 토속음식을 맛볼 수 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곤드레밥.



함백산 정상.

〈본 레거시〉

스파이도 인간이다 조직의 배신을 응징하다

THE
BOURNE
LEGACY

국방부의 대테러 방지본부 밑에는 급비리에 가동하고 있는 첩보 프로그램이 있다. 아웃컴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첩보원들에게 약을 주입해서 특수한 신체적, 지적 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 다른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병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정보국의 첫 번째 특수 프로그램인 트레드스톤이 실패로 돌아간 것도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첩보원을 취급했기 때문이다.

첩보원 제이슨 본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명령을 어기고 반역을 했다. 그는 기억 조작의 비밀을 알아내고 잘못된 프로그램을 기획한 본부요원들의 음모를 밝혀 낸다. 그는 음모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결국 불순한 방식으로 몰래 수행했던 첩보 프로그램을 해체시킨다.

여전히 본이 살아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아웃컴 팀장 바이어(에드워드 노튼 분)는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해체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수행하던 첩보원들이 하나씩 제거됐는데 그중 첩보원 애론과 연구원 마르타(레이철 와이즈 분)만 살아남는다. 바이어는 이 둘을 제거하기 위해 첩보원들을 투입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현재 급비리에 연구 중인 세 번째 프로그램 락스의 첩보원마저 보내지만 패배하고 만다.

제이슨 본, 조직의 음모 알고는 반역

‘본이 남긴 교훈’. 제목처럼 이 영화는 사라진 첩보원 본 대신 같은 운명에 처하고 비슷한 활약을 하는 애론의 활약을 그린다.

본이 남긴 교훈은 “잘못된 목적에 의해 희생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 음모를 밝혀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에게 복수하라는 것”일 게다. 영화는 과거 냉전시대 반전적 메시지 스파이물의 원형을 따라간다.

유명한 존 르카레의 몇몇 작품들,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

〈러시아 하우스〉 등에서 보여 준 바 있는 이중 스파이들의 가혹한 운명과 그들의 불행한 사랑 이야기

들. 냉전시대 스파이들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다. 그들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계일 뿐 인간이 아니다. 그들을 파견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본부에서는 스파이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달성하면 버리는 그런 소모품. 스파이들도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하는 인간병기를 자처했다.

현대의 첩보영화는 임무수행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인간적 고뇌를 그리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지금 스파이들의 고뇌는 조직의 비인간성과 불순한 의도와 그 음모에 대한 것이다. 만일 잘못이 스파이가 아닌 본부의 잘못이라면? 자신들의 잘못마저 스파이들의 희생을 통해 덮어버리려 한다는 점에서 스파이들은 갈등한다.

본부의 잘못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기 마련이다. 스파이들은 심지어 반역할 수 없게끔 프로그램화되었다. 기억마저도 변형되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명령만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이제 스파이들의 갈등은 적 대국과 맞서 싸우는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같은 조직 내에서 명령을 내리는 상부와 임무를 수행하는 스파이들 간의 진실게임에 달려 있다. 스파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구한다.

맹목적인 충성심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상부의 명예를 위해서만 희생되는 존재인가. 만일 그 상부가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대의에서 벗어났다면? 그들이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공적을 위해 움직인 조직이라면? 그들을 위해서도 스파이들은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대답은 ‘노’이다. 그들은 결코 사적인 목적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첩보영화가 제시하는 주제의식은 현대 조직사회의 한 단면을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국가나 어떤 이익집단 권력과 그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반 시민의 의식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에 희생심은 그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능가하는 최고의 미덕으로 존재해 왔다. 개인은 결코 조직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조직과 권력의 부패는 결코 봉합되지 않는다. 영화 속의 대사처럼 “자네들은 조직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그 공을 조직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원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조직에서 맹목적인 충성심은 이제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아무리 첩통 같은 비밀조직이라 할지라도 비밀은 새 나가게 마련이다. 기억마저 조작할 정도의 철저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의도가 불순한 비밀은 새 나가게 마련이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과거에 조직을 배신하지 않는 첩보원들이 존재했던 이유는 의리라는 인간적 결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스는 부하 하나를 헛되이 생각하지 않았기에 부하들은 조직을 위해 충성했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무가치하게 버려지는 순간 조직에 반감을 품게 되고 오히려 조직을 이용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어한다. 조직이 인간을 소모품으로 다루는 순간 그 어떤 목적도 무가치해진다. 영화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직이 구성원들에 의해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다.

제이슨 본(맷 데이먼 분)이 없는 본 시리즈 영화 〈본 레거시〉. 본 대신 같은 운명에 처하고 비슷한 활약을 하는 애론(제레미 레너 분)의 활약을 그린다. 본이 남긴 교훈은 ‘잘못된 목적에 의해 희생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 음모를 밝혀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에게 복수하라는 것’인데 과연 애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글·정재형(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오프엔프리 국제확장예술제 조직위원장)



‘총알 식사’는 건강의 적

고지혈증·비만을 부른다

중견 기업 이사인 권모(50)씨는 식사를 총알같이 빠르게 한다. 상대방에 속도를 맞추지 않고 후다닥 위장에 쓸어 담는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돼서 고치려 해도 잘 안 된다고 한다. 그의 체형은 다소 뚱뚱한 편이다. 복부비만이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판정도 받았다. 가끔 헬스클럽에서 운동도 제법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하지만 살이 줄지 않는다.

글·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영상의학과 전문의)

권 이사의 문제는 밥 먹는 속도에 있었다. 식사시간이 짧을수록 고지혈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가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8771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각종 건강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시간이 짧을수록 체질량지수가 높아 비만의 위험이 크다.

혈액에 존재하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고지혈증의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혈액의 흐름을 막는다. 그런 동맥경화 현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을 유발해 생명까지 위협해질 수 있다.

포만감 느낄 적절한 식사시간 필요

이번 조사에서 식사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의 8%이다. 5분 이상에서 10분 미만은 44.4%, 10분에서 15분 미만은 36.2%이다. 조사대상의 약 90%, 즉 10명 중 9명은 식사시간이 채 15분을 넘기지 않는다. 성격 급한 한국인은 밥도 빨리 먹는다. 그런데 식사시간이 짧을수록 섭취하는 칼로리는 높았다. 이로 인해 체질

량지수(BMI지수)가 증가했다. 남성은 식사시간이 5분 미만일 경우가 15분 이상인 경우보다 평균 약 110칼로리를 더 섭취한다. 이는 밥 3분의 1 공기를 더 먹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체중은 평균 4kg 이상 높다.

그렇다면 밥을 빨리 먹는다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문제는 포만감이다. 우리가 통상 배고프다는 허기를 느끼고 식사를 시작했을 때, 소화된 음식이 위장에서 흡수되어 혈당으로 전환되어 뇌로 가는 시간은 대략 15분이다. 그래야 허기감이 사라지고 포만감이 생겨 배부르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인의 대부분이 식사 속도가 워낙 빨라서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음식을 계속 먹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식사시간은 선진국보다 매우 짧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져온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식사시간이 빠를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빠른 식사습관이 고지혈증의 위험을 높이고 비만을 키우는 만큼 포만감을



적절한 시점에 느끼도록 적당한 식사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지방질 음식을 적게 먹고, 소금 섭취량을 줄이며, 사히거나 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 하지만 이처럼 식사와 관련된 행동습관도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다. 이런 사람은 가슴 통증이나 변비 등 소화기 증상을 많이 앓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알코올 섭취량이 많으며,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등 좋지 않은 건강습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후에 누워 있는 것이 좋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건강상식이라는 지적이다.

식후 눕는 습관도 흉통·변비 가져와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가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2311명 중 ‘식후 2시간 이내에 눕는 습관’에 대해 응답한 1030명의 검진자료를 비교 분석한 적이 있다. 식후 눕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총 594명(58%)으로,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거나, 저녁 식사 후 누워서 TV를 보거나 바로 잠을 자는 경우 등이다. 통상적으로 식후 2시간이 지나도 음식물이 위에 남아 있다.

조사 결과, 식후 눕는 습관이 있는 그룹에서 흉통(가슴 통증)과 변비 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염 발생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9% 높고,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축성 위염은 62%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후 자주 눕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알코올 섭취량도 많았으며,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고, 간식을 먹는 횟수도 잦았다. 또 낮잠을 더 많이 자고, 야간에 자다가 깨는 횟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비만도는 더 높고 흡연, 커피 섭취량, 운동량 등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식후 바로 눕는 습관 또는 밤늦게 먹고 바로 자는 습관은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 발생의 위험요인이다. 음식물의 위 배출시간을 지연시켜 더부룩함, 명치 통증, 트림 등의 각종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소화기계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이 습관은 소화기 질환과 증상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 이들에게 변비가 많은 이유는 식후 눕는 자세가 음식물 이동시간을 지연시키고, 소화기관의 운동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인간 질병의 약 30%는 먹는 것과 관련 있다. 여기에는 무엇을 먹는 것에서, 어떻게 먹는 것도 포함된다. 식사를 천천히 즐기며 스트레스를 줄여줄 대화를 나누며,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소는 풍부한 식사를 한다면, 건강 장수의 30%는 이미 확보한 셈이다.



고지혈증과 비만을 예방하려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조선시대 분경금지법 청탁행위를 근절하라! 권력자에 접근 차단

권력가에 대한 인사 및 이권 청탁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도 이러한 문제들로 세상이 들썩거리기도 했지만
권력가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으려는 인간의 탐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글·김정미 (사나리오 작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관직에 오르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던 조선시대에, 그것도 고위
관료가 되면 그에 줄을 대어 벼슬자리를 얻
거나 승진하려는 사람들이 들끓었다. 이를
'분경'이라고 한다.

분경은 분주경리(奔走競利)의 준말로
서 직역하면 '분주히 쫓아다니며 이익을 추
구한다'라는 뜻이다. 조선이 관료중심 사회
다 보니 통상 고위관료의 집을 드나들며 뇌
물을 바치고 인사문제를 청탁하는 일을 분
경이라고 하였다.

이 분경은 고려 말의 기록에 보면 사회
문제화되어 이를 금지하려는 노력이 다각
도로 있었는데, 기록에 언급되는 것이 고려
말부터일 뿐 이미 그 전부터 횡행했을 것으

로 파악된다.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이 분경을 엄격
히 금지하였는데 2대 왕인 정종 때 이미 분
경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그 뒤를 이은 태종
때 가장 철두철미하게 분경을 단속하였다.
이는 태종이 무력시위로 왕위에 오른 것이
다 보니, 사람들이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 고
위직을 중심으로 모여 왕권을 위협하는 세
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복안도 있
었다. 태종 때는 분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
는 고위직의 종류도 많았고 분경에 대한 처
벌 또한 매우 엄했다.

집에서 친척·이웃 외엔 못 만나

분경에 대한 감시는 권력자의 집 앞에

서리 등을 세워서 이루어졌다.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한 때가 아니니 분경하려는 자
는 권력가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나라에서 관원을 보내 감시한 것이다. 일정
정도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고위직에 오르
면 집에서 사사로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고위직
도, 분경하러 찾은 자도 큰 처벌을 받았다.

정종 때 정해진 분경금지법에는 공신
의 경우 사촌 내의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고
는 집에서 사사로이 사람 만나는 것을 금지
했다. 만일 이를 어기면 먼 지방에 귀양 보
내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태
종 때는 관리가 친가·외가의 5촌 밖에 있는
사람을 집에서 사사로이 만나면 신문도 하
지 않고 바로 파직하고 귀양 보내도록 하였
으며, 문관뿐만 아니라 무관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이런 태종 때의 엄격한 분경 금지는 이
후, 신하들이 선비들을 만날 수 없어 인재
를 알아볼 수 없다는 아우성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완화되었지만, 성종대에 이르

면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어 조선시대 내내
중요한 법규가 되었다. <경국대전>에 명시
된 분경 금지는 그 범위가 정3품 이상의 당
상관과 사헌부 및 사간원 관리들까지였으
며, 이들은 친가 8촌, 외가 6촌 이내, 이웃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사사로이 집에서 만
날 수 없었다. 이를 어기다가 발각되면 그
내용 및 사정은 고려되지 않고 모두 분경으
로 간주하였으며 곤장 100대와 함께 3000
리 밖으로 유배 보내도록 규정되었다.

꽤 엄격하고 혹독한 규정이었다. 그러
나 이런 법규에도 성공하고 싶은 인간의 탐
욕은 법망을 피해 고위직에 줄대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조선 시대 500년간 분경은
늘 사회문제로 거론되었다.

분경 금지가 가장 심했다는 태종 때 분
경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를 파지기
까지 한 박유손의 이야기가 실록에 등장한
다. 판사 박유손은 개국공신인 조온에게 분
경하여 국왕의 호위부대인 별시위의 패두,
즉 우두머리 자리를 얻고자 하였다. 이 자리
는 왕이 후보 3명 중 1명을 골라서 앉혔는

데 이를 삼망이라고 하였다.

조온이 박유손을 첫 번째 후보로 밀었
다. 그러나 정작 태종이 고른 것은 세 번째
후보 황한우였다. 청탁을 했는데도 자신이
떨어지자 화가 난 박유손은 공신인 조온을
차마 찾아가지 못하고 당시 왕의 비서격으
로 있던 황희를 찾아가 왕에게 조온의 추천
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행패를 부렸다.

청탁하는 자에 더 큰 벌 내려

황희는 즉각적으로 왕에게 박유손으
로부터 봉변당한 일을 알리고 사직서를 제
출했다. 태종은 박유손에게 분경죄를 적용
해 남포로 귀양을 보냈다. 황희는 다시 업
무에 복귀하였으며, 청탁을 받은 조온은 죄
가 있으나 개국공신인지라 이번만은 논외
로 하였다. 조온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개 청탁을 받은 자보다 분경한 자가 더
큰 벌을 받았다. 고위직은 그 나름 공신이
거나 국가에 대한 공이 있어서 큰 벌을 받
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분경
은 근절되지 않고 음지로 숨어들어 끊임없

이 계속되었다.

조선 8대 왕인 예종은 아버지 세조대의
공신들이 그 공로를 믿고 저지르는 각종 부
정을 막기 위해 애썼는데 공신가를 중심으
로 만연한 분경을 단속하기 위해 기습수사
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 기습수사에 선대부
터 공신인 신숙주, 정인지, 우의정 김질, 종
친인 구성군 이준 등이 적발되었다. 정인지
는 분경 단속을 위해 들어온 서리를 오히려
꾸짖고 폭행하는 등 기세등등함을 보였지
만 예종의 지시로 탄핵되었고, 신숙주는 함
경도 관찰사 박서창이 보낸 표범가죽과 인
사청탁을 하는 편지가 발견되어 예종이 관
련자들을 친히 국문하기도 하였다.

비록 조선시대 내내 분경은 항상 사회
문제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만큼 이를 근절
시키려는 의지 또한 확고했다. 청탁과 뇌물
로 관직에 오른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
르고 탐관오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이
자명하였기에 조선은 500년간 분경에 대해
억척스러운 만큼 경계하고 이를 금지하려고
애썼다.



이란과 원정경기 필승카드를 찾아라

월드컵 최종예선 10월 17일 4차전... '홍명보 키즈' 중용 가능성

2014년 브라질월드컵으로 가는 한국 축구의 여정은 10월 17일(한국 시각) 이란 원정경기에서 반향점을 맞는다.

우즈베키스탄(9월 11일 경기)과 2 대 2로 비긴 한국은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서 2승1무(승점 7)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나란히 1승1무1패로 승점 4점을 기록한 이란(골 득실 0), 카타르(-2), 레바논(-3)이 골 득실차로 2~4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2무1패)은 승점 2점으로 최하위로 밀려났다. 아시아 최종예선은 10개국 5개국씩 A·B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르며 각조 1·2위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3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벌인다. 플레이오프 승리 팀은 남미 5위 팀과 마지막 한 장의 본선행 티켓을 다툰다.

이번 최종예선에서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라이벌 이란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면 한국은 1986년 멕시코월드컵 이후 8연속 본선 진출로 가는 9부 능선에 오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순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축구의 브라질월드컵 티켓 행보는 차질 없이 진행될까. 현재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10월 17일 벌어지는 난전 이란과의 어웨이 경기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글·민학수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최강희 감독은 이란전에서 좌우 풀백에 '제2의 이영표'를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탄한 일정을 남겨놓게 된다. 조 1위라는 유리한 입장에서 내년엔 치르는 나머지 4경기인 카타르(2013년 3월 26일), 레바논(6월 4일·원정 경기), 우즈베키스탄(6월 11일), 이란(6월 18일)과의 경기 가운데 3경기를 홈에서 치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 원정은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어려운 곳이다. 1200m가 넘는 고지대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홈 관중의 열광적인 응원 때문에 '원정팀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 전적에서 9승7무9패를 기록 중이지만 원정에서는 2무2패로 아직 승리가 없다. 이란이 1승1무1패(승점 4)로 위기에 몰려 있어 배수진을 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베이루트 원정경기에서 '복병' 레바논에 0 대 1로 패해 자국 팬들의 엄청난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란에 승리 땀 본선 진출 9부 능선 올라

최강희 감독은 "이란이 레바논에게 저승점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우리와 치르는 4차전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이라며 "우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절실하게 느낀 바가 있어 준비를 더 착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미드필드의 압박 실종과 오른쪽 풀백의 취약점을 드



런던올림픽에서 진가를 발휘한 박주영이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슈팅을 하고 있다.

러냈다.

최강희 감독은 "좌우 풀백에 고민이 많다"며 "이란과의 원정경기에서 나서기 전에 선수들을 소폭 변경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역 시절 최강희 감독의 포지션이었던 오른쪽 수비는 적임자를 찾지 못해 경기마다 선수가 달라질 정도로 현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이다.

한국 축구가 측면 수비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한 것은 이영표가 2011 아시아컵을 끝으로 은퇴한 이후부터다. 10년 이상 한국 최고의 측면 수비수로 군림한 이영표는 주로 왼쪽 수비를 자주 봤지만 2006 독일월드컵에선 오른쪽 풀백으로 뛴 만큼 양쪽에서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이영표가 대표팀에서 사라지고 나서 왼쪽 수비에선 박주영(바젤)과 윤석영(전남) 이란 대안이 나타났지만 오른쪽은 속 시원

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강희호(號)가 출범한 이후 A매치 7경기에서 번갈아 오른 쪽 풀백으로 나선 오범석(수원)·최효진(서울)·신광호(포항)·고요한(서울) 등은 누구도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한국 중앙 미드필더 '압박축구' 되살려야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차두리(뒤셀도르프)는 최강희 감독 부임 이후엔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고 있다. 김창수(부산)가 런던올림픽에서 오른쪽 수비수로 맹활약하며 유력한 대안으로 꼽혔지만 영국과의 8강전에서 당한 팔 부상 여파로 당분간 대표팀 유니폼을 입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감독은 "측면 수비수들에게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주문했지만 당분간 수비에 강점을 지닌 선수를 기용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전에서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시하는 미드필드에서의 압박이 실종된 것도 문제였다.

런던올림픽 한일전에서 보여 줬던 한국의 투지는 오히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에게 찾아볼 수 있었다. 중앙 미드필드로 조합을 이뤘던 기성용(스완지시티)과 하대성(서울)은 공격 때는 약간 쳐져 있고, 수비 때는 오히려 수비수들과 간격이 벌어지는 등 위치 선정이 애매했고, 적극적 몸싸움을 벌이지 않아 상대 흐름을 끊는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런던올림픽 동메달 획득이란 거품에서 벗어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정신 무장이 절실한 대목이다.

최강희 감독은 또 이동국(전북)과 이근호, 김신욱(이상 울산), 박주영(셀타 비고) 등으로 구성된 공격라인의 조합도 재검토할 뜻을 비쳤다.

최 감독은 "박주영과 얘기를 많이 하면서 대표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박주영의 컨디션이 올라온다면 당연히 여러 옵션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조합을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이 새로 이적한 셀타 비고에서 자주 출장 기회를 잡아 정상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최 감독은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젊은 선수들이 경기를 오래 뛰지 못한 점이 있어 우즈베키스탄전에는 많이 기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최종 예선을 통해 본선 티켓 획득과 적절한 세대교체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가을 자라섬은 재즈로 물든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여름이 록(Rock)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재즈(Jazz)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마침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가평군과 자라섬 일대에서 펼쳐진다.
가을밤 재즈의 향취에 빠져 보자.

비가 오면 흔적 없이 물에 잠겨버렸던 땅에서 한국 재즈의 중심지이자 아시아 최고의 재즈축제장이 된 자라섬. 매년 10월 자라섬은 온통 재즈로 물든다. 지난해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면에서도 새로운 페스티벌의 롤모델이다. 관객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나눠 주어 깨끗한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활동가들이 수시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등 친환경 축제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녹색성장이 화두인 요즘 관객들에게 중앙선과 ITX청춘열차 이용 등을 유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2012년 환경부가 선정하는 녹색생활 축제 홍보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계 정상급 재즈 뮤지션 42개 팀 참여

그동안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화려한 라인업(출연진)과 수준 높은 무대로 매년 전 세계 재즈마니아들에게 주목받아 왔다. 올해 역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25개국의 정상급 아티스트 42개 팀(외국 28개 팀·국내 14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우선 “참가만으로 ‘홍행’이 보장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제가 되는 ‘재즈의 레전드’들이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찾는다. 세계 3대 퓨전재즈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미국의 존 스코필드가 스티브 스왈로(베이스), 빌 스튜어트(드럼)와 함께 선보이는 ‘존 스코필드 트리오’가 대표적이다.

고전 재즈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정통 재즈 빅밴드의 공연도 만날 수 있다. 바로 재즈 오케스트라의 대명사인 미국의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가 내한하는 것.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압둘라 이브라힘의 무대 등도 관심을 모은다. 지미 콥·조이 디프란시스코·래리 코리엘 올스타 트리오도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레전더리 재즈

무빙 포워드(Legendary Jazz Moving Forward)라는 부제에 걸맞게 재즈의 과거와 미래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프렌치 재즈의 서정미를 보여 줄 프랑스의 거장 드러머 다니엘 위메르의 리유니언 콰텟이나 35년간 한결같이 퓨전 재즈 밴드를 이끌어 온 제프 로버의 공연도 기대되는 무대로 꼽힌다.

국내 정상 아티스트들의 무대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자라섬국제재즈콩쿨 우승자인 이주미 콰텟을 비롯해 벨기에인 장구 연주자가 멤버로 있는 이지혜 콰텟, 피아니스트 임인진, 여성 비트박서 버티스카치 등이 국내 아티스트로 참가해 페스티벌 무대를 장식한다.

재즈 아일랜드 등 9개 무대에서 공연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찾는 수많은 관객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공연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메인 무대 재즈 아일랜드(Jazz Island)를 중심으로 메인 무대 뒤편 파티 스테이지(Party Stage), 자라섬 다목적운동장 재즈 클럽(Jazz Cube) 등을 포함해 총 9개 무대에서 열린다. 모든 무대가 걸어서 10분 내 이동이 가능해 관객들은 무대를 오가며 다양한 장르의 재즈를 즐길 수 있다. 재즈 아일랜드와 파티 스테이지에선 유료 공연이, 그 외 장소에선 무료 공연



이 펼쳐진다.

10월 12일 오후 7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압둘라 이브라힘 솔로피아노 '센조', 토마쉬 스탄코 콰텟, 제이슨 리 그룹, 이바 램컴, 베이비리브&반 당고스의 공연이 다음 날 오전 2시 10분까지 차례로 이어진다. 제9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의 대미는 '존 스코필드 트리오'가 장식한다.

메인 무대에서 국내외 재즈 뮤지션들의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가평읍 일원에 마련된 스테이지에서는 낮부터 밤까지 프린지 무대도 운영된다. 국내외 실력 있는 신인 밴드를 위한 이 무대는 재즈뿐만 아니라 힙합, 록, 팝 등 다양한 음악을 선사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그 중 하나로 올해 처음 시도되는 '2012 한국 재즈쇼케이스'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실력 있는 국내 및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강력한 프로모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다. 16개국 28개 팀이 참가신청을 해 조남열 콰텟을 비롯해 파스칼 슈마허 콰텟, 지올리아 바예그룹, 디에고 피게이레두 트리오 등 4개 팀이 이번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통해 공연을 갖는다. 조남열 콰텟은 다국적 출신이 모인 팀으로 새로운 시도와 과감한 연주로 주목받고 있다. 벨기에의 파스칼 슈마허 콰텟은 비브라폰의 영롱한 터치와 타이탄한 피아노 트리오 연주가 완성도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자라섬국제재즈콩쿨을 비롯해 그동안 재즈를 통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해 온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지난해 네덜란드 특집에 이어 올해 '폴란드 포커스(Focus on Polska)'를 진행한다. 폴란드 포커스는 총 4팀으로 구성되며 그중 세계적인 트럼펫주자 토마쉬 스탄코의 연주는 농치기 아까운 공연으로 꼽힌다.

한편 2004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고 있는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해마다 관객수를 갱신하며 지난해 관객수 18만8000명 포함, 누적 관객수 94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관계자들은 올해 누적 관객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심 공연 4選

①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

듀크 엘링턴이 창립해 지금까지 이어오는 빅밴드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재즈 오케스트라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무대다. 그동안 자라섬에서는 2009년의 디디 브릿지워터&서울 재즈 빅밴드, 2010년 최선배with챔버 소사이어티 등의 대규모 편성의 재즈가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이른바 '정통 빅밴드 스타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② 존 스코필드 트리오



팻 메니시, 빌 프리셀과 함께 현존하는 세계 3대 재즈기타리스트로 꼽히는 존 스코필드가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베이시스트 스티브 스왈로, 드러머 빌 스튜어트와 함께 펼치는 공연. 은발의 베이스 거장 스티브 스왈로와 팻 메니시 트리오의 멤버로 잘 알려진 드러머 빌 스튜어트와의 탁월한 조화가 기대된다. 80년대부터 호흡을 맞춰 온 존 스코필드와 스티브 스왈로의 무대를 만나는 건 재즈팬들에게 흔치 않은 기회다.

③ 압둘라 이브라힘

남아공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압둘라 이브라힘이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권위 있는 영국의 잡지 가디언은 그에 대해 '사람들은 압둘라 이브라힘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를 숭배한다고 평한 바 있다. 그의 연주에는 아프리카의 영적인 힘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한 명의 재즈 아티스트가 수만 명의 관객을 압도하는 솔로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④ 레전더리 재즈 무빙 포워드

마일즈 데이비스의 전설 같은 시대를 함께했던 드러머 지미 콥, 탁월한 테크닉의 하몬드 오르가니스트 조이 디프란시스코, 퓨전 재즈기타의 선구자 래리 코리엘. 이들이 뭉쳐 60년대의 두 전설적인 재즈 뮤지션에게 헌정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자라섬과 같은 대형 재즈페스티벌이 아니면 보기 힘든 공연으로 꼽힌다.



추석 명절 스트레스, 앱으로 한 방에 날리자



차레상 차리기

애플 앱스토어(무료) 안드로이드 마켓(무료)

차레상을 차릴 때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음식을 놓아야 할지 헷갈린다면 이 앱이 필요하다. 차레상 앱은 추석 준비에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흥동백서

(紅東白西), 조율이시(棗栗梨柿) 같은 원칙을 기본으로 음식 놓는 자리를 볼 수 있으며, 음식 위치를 클릭하면 차례 음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또 지방 쓰는 법과 남녀 절하는 법 등 다른 예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차레상 차리기를 게임처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습코너도 있다.



한게임 웃놀이

애플 앱스토어(무료) 안드로이드 마켓(무료)

NHN의 한게임 웃놀이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왔다. 스마트폰의 특징을 이용해 단말기를 흔들어 웃을 던질 수 있

으며, 음성 명령을 내리는 등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다. 싱글모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미션이 주어져 혼자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며, 초대 기능을 통해 친구를 초대해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베스트 휴게소

애플 앱스토어(무료) 안드로이드 마켓(무료)

귀성길 고속도로 교통체증에 다소라도 숨통을 트이게 해 주는 곳이 바로 휴게소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1곳을 소개하

고 있는 이 앱은 각 휴게소의 먹거리와 청결도, 이색적인 모습 등을 소개한다. 호텔 수준의 화장실을 보유한 휴게소, 전국적으로 유명한 먹거리를 보유한 휴게소, 휴게소 주변 음식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TV TIME

애플 앱스토어(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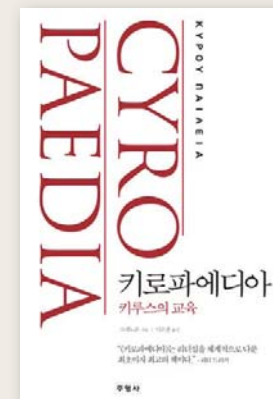
추석 연휴기간 동안 TV에서는 최신 특선 영화와 명절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진다. 이를 놓치지 않으려면 TV타임 앱을 이용해 보자. 각 방송사별 TV편성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편성표를 확인한 후 보고 싶은 프로그램에 예약 기능을 사용하면 해당 시간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글·권세진 기자



고대 페르시아제국을 세운 리더십



키로파에디아
크세노폰 지음 | 이은종 옮김
주영사 | 456쪽 | 2만5000원

〈성경〉을 보면 유대인을 ‘바빌론의 유수(幽囚)’로부터 해방시킨 ‘바사왕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온다. 그가 바로 고대 페르시아제국의 키루스대왕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철학자·군인·저술가였던 크세노폰은 이 책에서 키루스가 제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그려내고 있다.

우선 키루스는 동기부여에 능하다. 키루스는 자신의 정복전쟁에 따라나서는 자들에게 멋진 미래를 그려 보이면서, 신분이 낮은 자들에게도 전공만 세우면 귀족들과 동등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약속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키루스는 병장과 식량, 보급품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병사들을 끊임없이 단련시킨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쟁심리를 적절히 활용한다. 이를 통해서 장병들은 키루스를 비롯한 상관들에 대한 믿음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피터 드러커 “리더십을 다룬 최초·최고의 책”

아무리 그래도 훈련은 고달프고 전투는 두렵기 마련이다. 병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키루스의 술선수법과 신상필벌, 배려와 소통이다.

키루스는 군사들이 맘을 홀리지 않고는 절대로 점심이나 저녁을 먹지 못하게 한다. 부하들에게만 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실천한다. 키루스는 공을 세운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준다. 하지만 한번 높이 세운 자라도 이후의 업적이나 행실이 변변치 못하면, 원래의 자리로 강등시킨다. 키루스는 늘 남에 대한 배려를 우선한다. 그는 당장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그것은 결국 몇 배의 이익이 되어 그에게 돌아온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키루스는 참모들에게 “장병들의 공로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상할 것인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보상할 것인가”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마음은 차등보상이지만, 짐짓 다중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또 키루스는 장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훈련이나 전장에서 공을 세운 장병들을 수시로 식사자리에 초대해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구두지시에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키루스 리더십의 한 특질이다.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리더십의 본질은 금을 막론하고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이 책을 두고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이자 최고(最高)의 책”이라고 평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단순히 리더십 교과서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재물이 인간에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행운·불운과 인간의 자제력, 인간의 본성 등에 대한 짙막한 논의나, 책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이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라는 사실을 새삼 상기하게 된다.

글·배진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교육분야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국민신문고 태국어 민원창구 개통 등 부패방지와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글·권세진 기자

교육분야 현안 온라인 설문조사·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24일 까지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사회 교육 분야 현안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총 1170명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 국민들은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과반수가 넘는 54.4%(636명)가 ‘가해자 징계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정 교육의 부재와 기능 약화'(20.3%, 288명)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관대한 처벌'(17.6%, 206명), '학교와 교사의 대처능력 미흡과 권한 부족'(13.8%, 162명)을 들었다.

고교 졸업만으로도 인정받는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는 '고졸 취업자에 대한 연봉, 승진기회 등 불평등 구조 개선'(32%, 374명),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교 교육력 제고'(23.2%, 272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20.1%, 235명) 등이 꼽혔다.

한편 설문조사와 별도로 7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국민신문고에서 열린 교육 관련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총 2765건의 의견이 개진됐으며, 분석 결과 의견제시자들은 교육정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 조건으로 ▲사회변화를 미리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예측성) ▲다른 정책과의 종합적 판단(연계성) ▲범국민적 동의(공정성)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 '태국어 쌍방향 민원창구' 개통

국민권익위원회는 1만7500명에 달하는 태국 거주 한국교민과 2만7000여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태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범정부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태국어 쌍방향 민원창구를 9월 14일 개통했다.

이번에 개설한 '국민신문고 태국어 쌍방향 민원창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옴부즈만이 상호 자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자국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태국 또는 한국의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하고, 민원인은 결과를 자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권익위는 2008년 영어를 시작으로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10개국 외국어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에 개설해 운용하고 있다.

군 자살 민원 해결 위해 대한법정신의학회와 MOU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1일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군 자살(자해사망)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망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조사의 공정성을 위한 자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한법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정신의학은 일반 임상정신의학과 달리 주어진 법적 문제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신경정신과적 감정과 자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한법정신의학회는 1992년 설립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학회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부대 내 폭행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발생한 자해행위에 대한 분석을 학회로부터 제공받아 군 사망자의 순직권고 여부나 국가유공자(정신과)와 관련한 민원 해결에 활용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군 사망사고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학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계약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산하기관 등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5일 공무를 빙자한 관광성 국외여행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직자의 국외여행이 계약수주, 예산확보, 지도·감독 무마 등 이해관계자의 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000여 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해외 골프 접대 등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통제하기 위해 국외여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기적인 자체 감사활동도 강화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부정청탁금지법’ 8월 22일 입법예고
금품수수 없이도 부정청탁 댄 과태료

앞으로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자에게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비록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8월 2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 가진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형법·공직자윤리법·권익위법·공직자행동강령 등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패의 사각지대를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권익위는 10월 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보완해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10 콜센터 추석연휴에도 정상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가 추석연휴기간(9월 29일~10월 1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110 콜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모든 민원을 자동응답이 아닌 110 상담사들이 직접 상담하는 곳으로, ▲고속도로나 국도의 교통상황과 대중교통 연장운행 ▲지역별 날씨 정보 등 귀성객들을 위한 정보안내는 물론 ▲긴급의료서비스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 위치 ▲가족 나들이 정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할 경우 단속에 대한 문의도 가능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상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생계침해신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토크 영상전화 수화상담(070-7947-8110, 8111, 9020) 서비스를 제공한다. 110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며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받는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에 적어 보내 주세요.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 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응모마감 10월 30일).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조사관의 현장이야기’를 읽으며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 달라는 민원인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는 권익위의 활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로 민원인의 한을 풀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명 한명의 소소한 권리 구제 이야기를 많이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조용호·대구 남구 대명5동)

소식지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이 어떤 때 권익위를 찾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도움이 컸습니다. 권익위가 하는 일을 다양하게 소개해 주는 것은 물론 독자들이 권익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직원 중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를 가진 분들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영·부산 서구 남부만동)

이동신문고가 경주에서 200회를 맞았고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로 많은 곳을 찾았다는 기사를 읽고 이동신문고가 국민의 애로와 고충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동신문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우향화·서울 강남구 삼성2동)

지난 호 퍼즐 정답

	¹ 투		² 내	무	³ 반
	⁴ 명	령	조		부
⁵ 원	성			⁶ 방	패
스		⁷ 배	우	자	
⁸ 툼	코	트			
		맨			

7·8월호를 읽고 86명의 독자분이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회를 맞은 이동신문고의 성과를 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잘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7·8월호에 첫선을 보인 ‘조사관의 현장이야기’가 국민권익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많은 분이 보내 주셨습니다. 런던올림픽 이야기도 지난 감동을 다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독자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국민권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호 퍼즐 정답자와 의견 채택된 분

조정선(전남 곡성군 임세라(인천 연수구) 조민지(충북 제천시) 박숙희(강원 원주시) 남혜정(부산 해운대구)

P U Z Z L E

			1		2
	3				
4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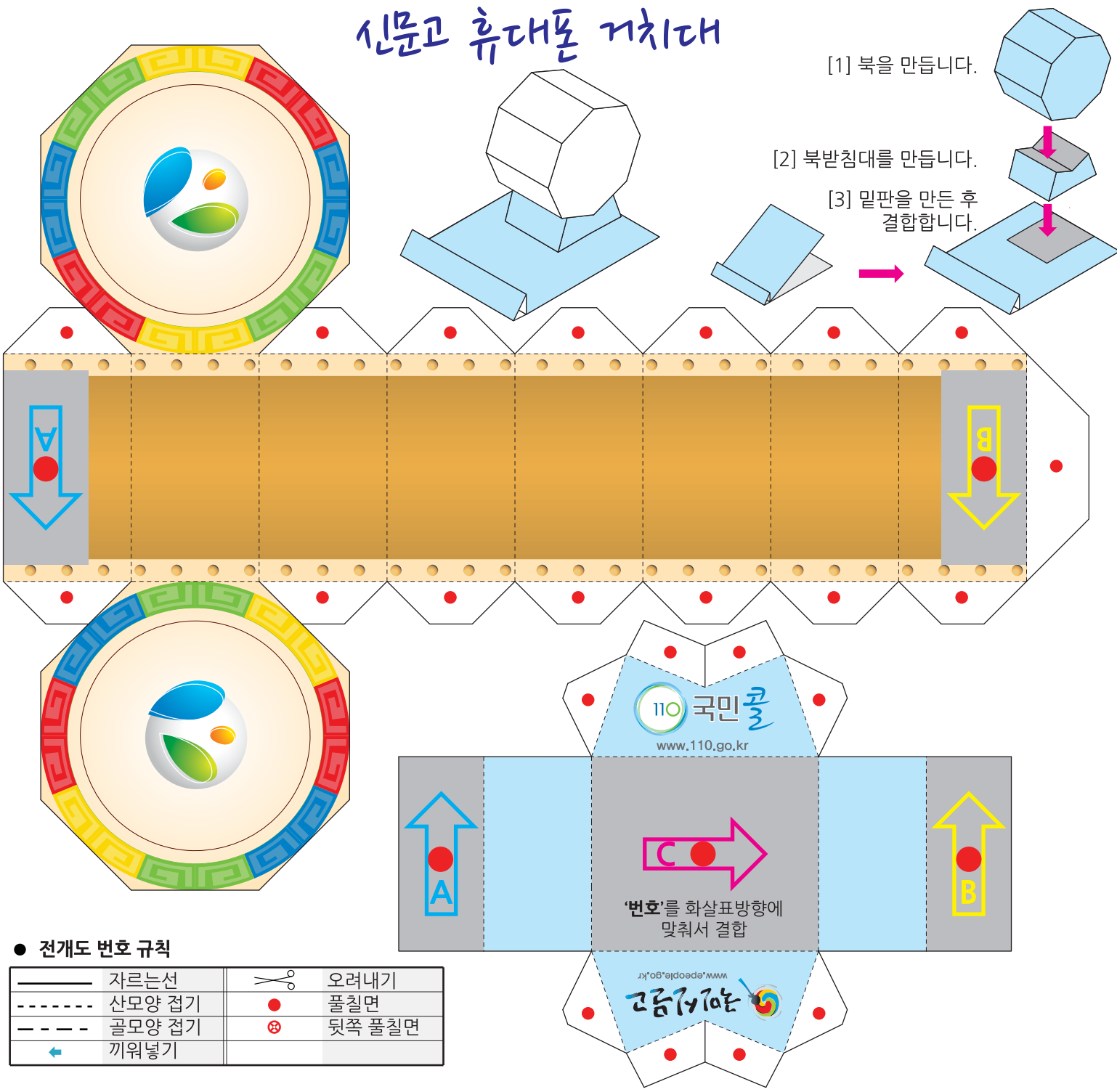
가로

- 한 지점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쪽으로 〇〇〇 오렴.”
- 소금에 절인 통무에 끓인 소금물을 식혀서 붓고 심심하게 담근 무김치.
-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하는 것.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〇〇을 깨다.”
- 한가위.
- 미루어 짐작하거나 생각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강조하는 말. ‘틀림없이’보다는 확신의 정도가 낮은 말이죠.
- =술개.

세로

- 음식에 양념이나 식료품을 더 넣어 맛이 나게 함. 본래의 것에 다른 요소를 보태어 넣음.
- 〈메밀꽃 필 무렵〉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 같이 길을 감. “국민의 소중한 권익,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〇〇합니다.”
- 고인이 된 사람을 생각하여 슬퍼함.
-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이 시상식에서 부른 노래는?
- 물건의 아가리나 구멍에 끼워서 막는 물건. 병〇〇.

신문고 휴대용 거치대



● 전개도 번호 규칙

——	자르는선	✂	오려내기
----	산모양 접기	●	폴칠면
- - -	골모양 접기	⊗	뒷쪽 폴칠면
←	끼워넣기		

